

ART BUSAN MONTHLY

예술부산

2023·11
VOL.221



우수콘텐츠잡지
2023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예술회관 기획 _ 문화가 있는 날

예감

— ;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2 0 2 3 년

3 월 ~ 1 1 월

부 산 예 술 회 관

공 연 장 · 전 시 장

3. 29.(*)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 해설과 함께하는 세계 명가곡 축제

4. 26.(*) 예술단체 백의(百意) - 백의민족 묘기(卯氣)

5. 31.(*) 국악그룹 헤이븐 - 첼로와 피아노로 함께 듣는 판소리

6. 28.(*) 드 콤마 - 클래식이랑 한바탕 놀아보까?

7. 26.(*) TDC양상철 - 움직이는 글: '실내악으로 만나는 문학 작품'

8. 30.(*) 극단세진 - 지니스토리 플러스

9. 18.(월) - 9. 24.(월) 부산공예예술협회 - 공예에 취(就)하다展

9. 20.(*) 이름전통춤연구회 -戀書

10. 25.(*) 젊은예술 날라리와 정이 - 토션섬, 행차하신다

11. 27.(월) - 12. 3.(월) 주식회사 틀라웨이브 - 디스트릭트 7展

11. 29.(*) 정·홍·동 국악예술단 - 이야기가 있는 가마금병창 '얼쑤! 한바탕 놀아보세'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사진연구모임 구인회, 구인회 세 번째 사진전 010-2268-5604 가곡교실 12사~13시50분(2중연습실) 아랑고교장구 14시~15시30분(2중연습실)	2 사진연구모임 구인회, 구인회 세 번째 사진전 010-2268-5604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사~12시(4중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50분(4중연습실)	3 사진단체 중강, 2023년 정기 전시회, 010-9957-0255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 모아락(樂) 당 나귀 발표회, 오후 7시, 051)627-85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 오전 10시	4 사진단체 중강, 2023년 정기 전시회, 010-9957-0255 부산동물사랑-판, 2023년 제18회 부산동물사랑-판 정기공연, 오후 3시, 010-9884-1528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 오전 10시
5 사진단체 중강, 2023년 정기 전시회, 010-9957-0255 부산패밀리빅밴드, 부산패밀리빅밴드 정기공연 오후 5시, 010-3849-0100	6 사진단체 중강, 2023년 정기 전시회, 010-9957-0255 웰빙댄스 10사~11시30분(4중연습실)	7 사진단체 중강, 2023년 정기 전시회, 010-9957-0255 수채화교실 10사~12시(회의실)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사~12시(4중연습실) 김정현의 평평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공연장)	8 사진단체 중강, 2023년 정기 전시회, 010-9957-0255 가곡교실 12사~13시50분(2중연습실) 아랑고교장구 14시~15시30분(2중연습실)	9 부산지방문화재 제22호 수영자신발기 예능보유자 김기출 팔순 기념공연, 오후 7시, 010-5133-3015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사~12시(4중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50분(4중연습실)	10 사진단체 중강, 2023년 정기 전시회, 010-9957-0255 봄별색소폰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오후 7시, 051)914-1415	11 사진단체 중강, 2023년 정기 전시회, 010-9957-0255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 11월 짜장콘서트나, 너 그리고 우리의 노래IV, 오후 4시, 051)987-500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 오전 10시
12 사진단체 중강, 2023년 정기 전시회, 010-9957-0255 아름브라스앙상블, 아름브라 스 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오후 6시, 010-2918-0010	13 사진단체 중강, 2023년 정기 전시회, 010-9957-0255 웰빙댄스 10사~11시30분(4중연습실)	14 사진단체 중강, 2023년 정기 전시회, 010-9957-0255 수채화교실 10사~12시(회의실)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사~12시(4중연습실) 김정현의 평평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공연장)	15 사진단체 중강, 2023년 정기 전시회, 010-9957-0255 가곡교실 12사~13시50분(2중연습실) 아랑고교장구 14시~15시30분(2중연습실) 부산-키자흐스탄 알마티 우호 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 알 마티 전통 오케스트라 초청공 연, 오후 7시, 051)711-6856	16 양흥근 전시 및 출판기념회 010-9878-0222 부산문인협회, 6대광역시 문학회 류전, 오전 10시, 051)632-5888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사~12시(4중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50분(4중연습실) (사)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오 케스트라, 가곡과 아리아의 밤, 오후 7시 30분, 070-7727-0188	17 양흥근 전시 및 출판기념회 010-9878-0222 신라대학교평생교육원, 가을밤의 풍경소리, 제11회 학점은행제 음악학 전공 정기연주회, 오후 7시, 051)999-6332	18 양흥근 전시 및 출판기념회 010-9878-0222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 오전 10시
19 양흥근 전시 및 출판기념회 010-9878-0222 카밀라오리엔탈 벨리댄스협회 _THE Gedda Oriental Dance Festival 오전 9시, 010-4857-9662	20 양흥근 전시 및 출판기념회 010-9878-0222 웰빙댄스 10사~11시30분(4중연습실)	21 양흥근 전시 및 출판기념회 010-9878-0222 수채화교실 10사~12시(회의실)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사~12시(4중연습실) 김정현의 평평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공연장)	22 메이크업 네일디자인전 태동숙, 김미현 2인전 010-5218-0087 가곡교실 12사~13시50분(2중연습실) 아랑고교장구 14시~15시30분(2중연습실)	23 메이크업 네일디자인전 태동숙, 김미현 2인전 010-5218-0087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사~12시(4중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50분(4중연습실) 극단누리에, 표본실의 창개구리 구리, 오후 7시 30분, 010-4190-4979	24 메이크업 네일디자인전 태동숙, 김미현 2인전 010-5218-0087 극단누리에, 표본실의 창개구리 오후 7시 30분, 010-4190-4979	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 오전 10시 극단누리에, 표본실의 창개구리 오후 4시, 010-4190-4979
26 부산발드르프학교 여치 _여치(사물놀이) 정기공연, 오후 2시, 010-8127-8288	27 웰빙댄스 10사~11시30분(4중연습실)	28 문화가 있는 날 주시회사 홀라웨이브, 디스트릭스7展, 051)631-1377 수채화교실 10사~12시(회의실)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사~12시(4중연습실) 김정현의 평평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공연장)	29 문화가 있는 날 주시회사 홀라웨 이브, 디스트릭스7展, 051)631-1377 가곡교실 12사~13시50분(2중 연습실) 아랑고교장구 14시~15시30분(2중연습실) 문화가 있는 날, 청 흥 동국악예 술단, 이야기가 있는 가이금병정 '얼썬 한바탕 놀아보세' 오후 7시 30분, 051)631-1377	30 문화가 있는 날 주시회사 홀라웨이브, 디스트릭스7展, 051)631-1377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사~12시(4중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50분(4중연습실)		



ART BUSAN MONTHLY VOL.221

2023 NOVEMBER 11

CONTENTS

권두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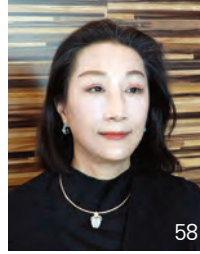
06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오페라 공연장 _ 전호환

예서제서

- 08 제61회 부산예술제
 - 2023 부산예술상 및 예술문화공로상 시상식
 - 제61회 부산예술제 개막식 <回>
 - 부산건축도시사진전
 - 전통음악한마당 '歌舞百戲'
 - 부산무용예술제 '秋 가을 속으로'
 - 제10회 지역문학작품 교류전
 -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전
 - 제6회 작강연극제
 - 2023 부산영화제 <거기, 모든이들>
 - 가곡과 아리아의 밤
 - 꽃 예술전 '꽃으로 만나는 가을'
 - 세계음다풍속
- 32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이음전통춤연구회 '戀書' _ 정지영
- 34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디스트릭트 7展
- 36 제39회 부산국제건축대전 일반국제공모



표지 _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이음전통춤연구회 '戀書'
지영숙_지전중(사진 박병민)



- 38 제35회 부산전국사진공모전
- 40 2023 부산음악대축제 III - 그랜드피아노 페스티벌 _ 정년경
- 42 조선통신사OK _ 김해성
- 44 세 번째 구인회 사진전
- 46 부산예술후원회 '2023 부산청년작가 해외 탐방'
결과보고회 - 해외탐방에서 얻은 것을 돌아보다

포토에세이

- 48 하늘의 시선: 드론으로 찾아낸 숨은 아름다움 _ 조순덕

열린마당

- 52 부산, 에세이로 피다 - 소금밭이 있던 자리 _ 김정화

인물포커스

- 56 건축가 조정훈 _ 이지윤

예인탐방

- 58 무용가 윤여숙 _ 이효민

예술가열전 214

- 60 화가 이강윤 _ 진수아

손으로 쓴 문학

- 64 동거 _ 이순선

들어다보기

- 66 미술/ 장한나 '뉴 락New Rock' _ 이지원
- 68 영화/ 박홍준 감독 <해야 할 일> _ 김민우
- 70 음악/ '오충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_ 이해영

기획연재

- 72 음악으로 본 세상이야기Ⅶ
-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의 오페라 이야기 _ 정두환
- 76 발레가 있는 무대Ⅴ- 발레, 스크린 속 욕망과 이념 _ 노영재
- 80 예총·전시·공연 뉴스
- 87 신간 안내
- 90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3년 11월 통권 221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라-01255)
 발행일_ 2023년 10월 25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이봉두(건축가회), 김인숙(국악협회), 김감용(무용협회), 이석래(문인협회), 박태원(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서영조(영화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장_ 정지영 편집기자_ 이효민 객원기자_ 이지윤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중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오페라 공연장

글_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

하룻밤 오페라공연 수입이 10억 원이 훌쩍 넘는 공연장이 있다. 아레나 디 베로나Arena Di Verona다. 베로나는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Veneto 주의 주도로서 인구 26만여 명의 아담한 관광도시다. 서쪽으로 150km 떨어진 밀라노와 동쪽으로 120km 정도 떨어진 베네치아의 사이에 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잘 알려진 도시이기도 하다. 로마 시대와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수많은 유적이 남아있어 도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아레나Arena는 일종의 원형경기장이다. 5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로마의 콜로세움이 대표적인 아레나다. 베로나의 아레나는 로마의 콜로세움보다 앞선 AD 30년에 건축되었다. 수용인원은 3만 명이다. 로마 시대의 아레나는 검투 경기장으로 사용되었다. 로마시민이 즐겼던 오락 중 하나는 검투사와 맹수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검투 경기다. 포효하는 맹수의 몸을 가르는 검투사의 숨소리와 칼 소리에 로마인들은

광적으로 환호했다고 한다. 먼 관중석에 앉아 있는 청중들이 이러한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레나를 설계하는 것은 청중을 모으는 열쇠였다. 고대 원형경기장에 수준 높은 음향 기술이 구현된 이유다.

1913년 이탈리아의 오페라가수 조반니 제나텔로는 베로나에 들르게 되었다. 그는 당시 폐허로 남아있던 아레나에 들어가 산책 중 원형경기장 반대편의 말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것에 놀랐다. 다양한 좌석에서 음향을 확인한 후 이곳을 오페라 공연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1913년 8월 10일 이탈리아의 영웅 주세페 베르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오페라 〈아이다〉 공연이었다. 이 공연을 시작으로, 전쟁과 코로나19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매년 이곳에서 여름밤 오페라 축제를 개최해 왔다.

올해로 100회째인 ‘2023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은 6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49회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8개의 오페라, 4개의 갈라 이브닝, 발레, 스칼라극장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특별 콘서트로 구성되었다. 공연된 오페라는 대부분 베르디의 인기 작품으로 <아이다> <카르멘> <세비야의 이발사> <리콜레토> <라 트라비아타>와 <나부코>이다. 푸치니의 <토스카>와 <나비부인>도 있다. 6월 16일 개막작은 전통을 따라 베르디의 <아이다>였다. 안전을 위해서 보통 1만 5천 명을 입장시킨다고 한다. 코로나19가 끝난 이유로 개막 공연 입장객은 2만 명 매진되었고 다음 날 17일 두 번째 공연도 2만 명이 입장하여 신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입장권은 약 7만 원에서 60만 원까지로 좌석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작년까지 관람객은 매년 약 50만 명이었고 이들의 60%는 세계 114개국에서 왔다고 한다. 입장료 수입은 약 300억 원 내외이고 오페라 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6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 이는 베로나 시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것이다. 올해는 관람객 60만 명을 예상한다고 한다. 축제 기간에 오페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만 1500명에 달한다. 조상이 남긴 유적인 아레나가 베로나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명대는 지난 4월부터 '조찬 클래식 음악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강사와 아티스트에 의해 진행되기에 이른 아침에 열리는 포럼임에도 신청자가 130여 명이나 된다. 여름 방학을 이용해 베로나 오페라 축제를 포함하는 이탈리아 음악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필자를 포함 21명의 음악기행단은 지난 7월 11일 로마의 고대 목욕탕인 카라칼라에서 <로베르토 볼레Roberto Bolle와 친구들>의 발레공연 관람을 시작으로 모데나의 파바로티 박물관, 부세토의 베르디 생가와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을 방문하고 7월 15일 오후 베로나에 도착했다. 베로나는 필자의 두 번째 방문이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도심 광장은 수많은 인파로 붐볐다. 15

년 전에 보았던 에르베 광장, 시노리아 광장과 브라 광장의 모습은 그대로였다. 베로나 여행의 필수는 줄리엣의 집이다. 입장권을 사고도 줄을 서 한참 기다려 줄리엣 집에 들어가 줄리엣 동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와인과 함께 저녁을 먹고 9시에 시작되는 오페라 <나부코>를 관람하기 위해 고대 건축물 아레나에 들어갔다.

3만 명을 수용하는 원형 계단과 경기장 한쪽 끝에 마련된 무대장치 규모의 장대함과 황홀함 그 자체였다. 당일 좌석은 1만 5천 개가 마련되어 만석이었다. 우리나라 야간 경기의 야구장 같은 분위기였지만 2000여 년 전 과거로의 여행이었다. 공연은 예정된 시간 밤 9시 정확하게 시작되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다. 운 좋게 좋은 좌석을 구입해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연주자를 바로 앞에서 보았다. 자연음을 보조하는 무대 마이크와 스피커가 보였다. 막이 끝날 때마다 쉬는 시간이 있었고 관객들은 와인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노예로 끌려간 히브리인들이 바빌론 강가에서 부르는 「노예들의 합창」은 오페라의 하이라이트였다. 공연이 끝난 후의 앙코르가 아닌 공연 중의 앙코르 요청으로 합창은 연속 두 번이나 울렸다. 세기의 마에스트로 다니엘 오렌의 능숙한 퍼포먼스가 앙코르를 유도하기도 했다. 공연은 새벽 1시경에 끝이 났다. 공연이 끝난 새벽 베로나의 카페와 술집은 사람으로 넘쳐났다. 우리 일행도 호텔에 돌아와 맥주 파티가 이어졌다.

오페라 공연장 하나가 베로나 도시 전체 예산의 절반을 벌어들인다. 현재 건립 중인 북향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을 먹여 살릴 '베로나의 아레나'가 되길 기대해 본다. 문화 예술은 인간이 투자하는 최고의 선택지가 아닌가.

※ 이 글은 국제신문 2023년 9월 1일 '전호환의 두잉세상,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22회 부산예술대상 수상자

2023 부산예술상 및 예술문화공로상 시상식

2023. 10. 5. 오후 5시
해운대 그린나래호텔 그랜드볼룸

해운대 그린나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3 부산예술상 및 예술문화공로상 시상식'이 열렸다. 제61회 부산예술제 개막식의 전야제로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부산예총은 제22회 부산예술대상, 제16회 부산젊은예술가상과 제3회 부산예술문화공로상을 시상했다.



제16회 부산젊은예술가상 수상자



제3회 부산예술문화공로상 수상자

축하공연은 바리톤 고영호와 소프라노 구민영, 가수 백수정이 꾸렸다.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은 시상에 앞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건 예술문화”라고 운을 띄우면서 “수상하시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도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닝즈 부총장(상하이 희극대학교 부속무용학교)과 수수무 기타자토 사무국장(후쿠오카 문화연맹)도 축하사를 통해 문화교류 재개의 기쁨과 수상자에 대한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제22회 부산예술대상 수상의 영예는 윤여숙 무용가, 김문홍 연극인, 고정화 음악인에게 돌아갔다. 피아니스트로 수백 회가 넘는 연주회를 개최하고 부산교육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기도 한 고정화 음악인은 “부친의 음악 정신을 이어받아 피아노 연주로 표현하고 실천하고자 했다. 나이가 있지만 독주회를 가지며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극작가 겸 연극평론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창작극 진흥에 앞장서고 지역 연극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한 김문홍 연극인은 “연극의 본질은 희곡이고, 무대 위 배우들의 숨결로 온전하게 만들어진다. 공연하면 사라지는 연극을 위해 연극평론으로 기록하는 것”이라며 연극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나는 소감을

밝혔다.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고무 전수조교로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윤여숙 무용가는 “무용협회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 상을 받는 거라 생각한다. 예술계가 힘들지만 부산 예술과 무용 예술이 꾸준히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6회 부산젊은예술가상을 받은 조정훈 건축가는 “쉽지 않았지만 여러 건축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건축이 예술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박상용 무용가는 “모두가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3회 예술문화공로상은 부산시장상 김재진 경동건설 회장-이창훈 파크랜드 부사장, 부산시의회의장상 장극태 부산음악협회 감사-지영숙 이음전통춤연구회 대표, 부산상공회의소회장상 김화수 부산국악협회 운영위원장-정인호 부산문인협회 부회장,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상 김재국 부산연예예술인협회 가요강사위원회 위원장-하병철 부산사진작가협회 감사 및 자문위원이 받았다. 부산예술상과 예술문화공로상이 지역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역사를 더해가길 기원한다.

/ 편집실



1

제61회 부산예술제 개막식 <回>

2023. 10. 6. 오후 5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제61회 부산예술제, 그 화려한 개막식이 10월 6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졌다. 코로나 기간에 잠시 중단됐던 해외 자매도시 교류도 재개되어 중국 상하이와 일본 후쿠오카의 공연팀도 참가했다.

‘회(回)’라는 주제로 마련된 개막공연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일반 시민들 1,2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국악협회 국악관현악단(지휘 김경수)은 대북의 웅장한 소리와 장구의 신명 나는 가락이 국악관현악과 어우러진 「여는 소리-새울림」 「소나기」 「비상」을 첫 무대로 선보였다. 일본 초청 연주팀은 일본 전통악기 샤쿠하치, 나가우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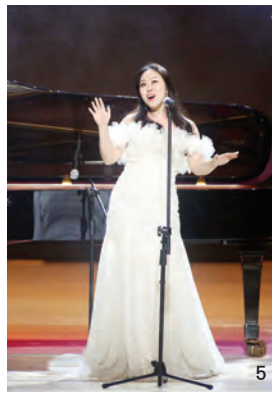


3

등의 신비로운 음색으로 독주와 합주를 펼쳤고, 이어서 무대에 오른 [헤이데이크루]는 케이팝 곡에 맞춘 락킹 퍼포먼스로 흥겨운 분위기를 이끌었다. 소프라노 박현진, 베이스 박상진은 각각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아리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Je veux vivre], 러시아 민요인 「백학」 등을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두 번째 해외 초청팀인 상하이 희극대학교 부속무용학교 무용단은 선녀를 연상케 하는 복색으로 고전 부채춤을 추었는데 <봄바람에 취한다>는 제목처럼 공연장에 봄이 온 듯, 계절을 잊게 만드는 무대로 눈길을 끌었다. 동아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은 안무를 곁들인 태권도 시범부터 격파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활동을 한 저력을 가감 없이 드러냈고, 국악인 겸 트로트 가수 조주한은 「한량가」 「기장갈매기」 등으로 개막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1963년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를 겸해서 제1회 부산예술제가 개최됐던 만큼, 부산예술제는 '부산광역시와 그 역사를 함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예술에는 시대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다. 61년간 도시 부산의 변화와 시민들의 역사를 예술로 오롯이 담아온 부산예술제가 거듭 발전해 가리라는 희망을, 개막식에 참석한 시민들의 면면에서 본다.

/ 편집실



- 1 부산국악협회 국악관현악단
- 2 일본 초청 연주팀
- 3 헤이데이크루 4 베이스 박상진
- 5 소프라노 박현진 6 가수 조주한
- 7 상하이 희극대학교 부속무용학교
- 8 동아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부산건축 도시사진전

2023. 10. 11. ~ 16.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부산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도시이다.” 어느덧 24회를 맞이한 ‘부산건축도시사진전’의 발제문 첫 문장이다. 부산건축가회(회장 이봉두)가 올해는 ‘부산’을 주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카메라 렌즈로 들여다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사진전에 수상된 작품들은 ‘빛을 통해 공간을 바라보는 능력’이 탁월했다. 특히 금상을 받은 장성필의 「별 좋은 날」은 단순한 화면 구성에 조형적 감각과 색채를 다루는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은상을 받은 최준혁의 「남겨진 시간의 흔적」은 벽체와 강한 빛이 조화로우며 질감이 섬세하게 도드라지는 작품이었고, 반미태의 「부산 남향」은 산, 도로, 바다로 이어지는 공간이 도시를 압축하여 보여주고 바다의 배와 항구 등 부산 도시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다.



이번 사진전은 부산에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장소, 무심히 지나쳤던 장소, 산복도로와 해안도로, 산과 바다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부산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발단이 되었다.

또한 부산의 젊은 건축가 작품展과 함께 제39회 부산국제건축대전 <일반국제공모부문·완공건축물부문> 수상자 작품도 함께 전시되었다. 인류 공통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팬데믹 이후의 '사회적 소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 문제 인식에 적합한 땅을 대상으로 삼고 문제에 대한 해법을 건축/디자인으로 구체화하여 작동 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는 심사 기준에 부합한 작품들이 선정되었다.

사진은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매체이다. 주변에서 만나는 조형으로의 건축, 도시에서 건축의 역할, 건축과 건축 간의 관계, 다양한 공간의 집합,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도시의 소소한 일상들을 사진으로 담아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다. 내년에도 건축과 도시에 대한 다채로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 편집실

- 1 금상_별 좋은 날
- 2 은상_남겨진 시간의 흔적
- 3 은상_부산 남향



2



3

전통음악한마당 歌舞百戲

2023. 10. 8.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만 바랐던 선조들의 바람은 의식주를 넘어 놀이까지 이어지는데, 다양한 문헌에서 우리 민족이 예부터 가무를 즐겨왔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유리 이사금 9년, 가배 행사에 ‘가무백희(歌舞百戲)’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노래하고 춤추며 온갖 놀이판을 벌인다는 의미다. 이 가무백희를 부산국악협회(회장 김인숙)는 부산의 삶이 담긴 풍물과 민속놀이를 한데 모아 지금 여기의 축제로 재해석했다. ‘전통사회에서 옛 선조들은 각 가정의 안녕과 태평을 기원할 때, 바다와 들녘 그리고 집터에서 땀 흘리며 일을 할 때, 풍년을 기원할 때 한결같이 우리의 노래와 춤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먼저 「구덕망개소리」 공연이다. 김귀엽 예능보유자와 왕순근 최상득 이수자, 전수생들이 집터잡기와 가래질, 망개질을 시연했다. 지금은 중장비를 동원해 망개질을 대신하고 있지만 노동의 고단함도 소리로 승화시켰던 선조들의 멋을 엿볼 수 있었던 무대다. 지신밟기의 한 형태인 「고분도리걸림(성주풀이)」은 농어촌이 결합된 지역의 특성을 따라 마을굿을 용왕굿으로 지내는 것이 특징이며, 지금도 정초에 걸림을 행하는 살아있는 전통 민속이다.

고된 농사일이나 뱃일에도 소리가 빠질 수 없다. 「수영농청놀이」에서는 모심는 동작과 함께 모심기소리를 재현했다. 해변가



에서 멸치잡이 후리질을 하면서 부르는 어업 노동요인 「다대포 후리소리」는 그물을 육지로 당겨 그물에 걸려 있는 멸치를 털고 가래로 퍼서 작은 소쿠리에 담은 과정을 보여주었다.

- 1 경기민요 2 고분도리걸림
- 3 구덕망개소리 4 다대포후리소리
- 5 동래야류 6 상하이부속무용단
- 7 수영농청놀이 8 쾌지나칭칭나네

긴 노동 뒤에 한바탕 신명도 풀어놓는다. 가무악이 복합된 연희인 「동래야류」는 원양반과 말뚝이가 주고받는 재담에 동래야류의 상징성이 돋보이며, 덧배기춤과 배김사위는 일품인 양반과장을 공연했다. 미래의 꿈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나영 이소정 조윤희는 「태평가」 「해운대아리랑」 등의 경기민요를 들려주었다. 부산예술제 해외교류를 위해 부산을 찾은 상하이 희극대학교 부속무용학교 무용단이 〈醉春风 봄바람에 취하다〉를 선보이기도 했다.

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김귀엽 이사장의 선창으로 「쾌지나칭칭나네」를 함께 부르며 이번 공연은 막을 내렸다. 막힘이 없던 야외에서 행해지던 것을 무대화시킨 이번 공연은 각 놀이의 전 과정을 다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 지역이 보존해야 할 귀중한 자산의 알짜만 챙겨본 듯 소중한 시간이었다. 삶의 형식이 달라져 각 민속놀이의 필요성은 퇴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뜻은 유지하며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 2030월드엑스포에서 세계인에게 보여줄 가장 부산다운 삶의 자락이기도 해서다.

/ 편집실





1



2

부산무용예술제 秋 가을 속으로

2023. 10. 18.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1 이민아무용단_태평무
- 2 박현주 부산시티발레단_무도회 왈츠
- 3 아트프로젝트 율로_빙글다
- 4 무브먼트 나인_Took
- 5 전통춤회 무아_살풀이춤
- 6 짓무용단_승무

가을에는 단풍만 있는 게 아니다. 흔히 아는 국화꽃부터 구절초, 쑥부쟁이, 개미취, 벌개미취 등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가을꽃은 다양하다. 부산무용협회(회장 김갑용) 주관으로 열린 부산무용예술제 '秋 가을 속으로'에서도 다양한 몸짓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민아무용단]은 절도와 품격을 갖춘 궁중무용의 특성과 즉흥신명으로 귀결되는 민속무용의 특성을 집약한 <태평무>를 찾다. 춤은 다섯 명의 군무로 시작해 이미란의 훌춤으로 흩어졌다 다시 군무로 발 디딤새가 하나가 되었다. 한영숙류 태평무답게 담백하면서도 절제미가 돋보였다. [박현주 부산시티발레단]은 박현주의 안무로 베버의 「무도회의

권유」 음악에 맞춰 창작한 <무도회 왈츠>를 선보였다. 무도회에서 신사가 숙녀에게 춤을 청하는 원곡과 달리 <무도회 왈츠>에서 여섯 명의 발레리나는 경쾌한 선율에 맞춰 발레의 우아함과 아름다운 동작으로 각자의 매력을 뽐내며 행복한 파티 분위기를 구현했다.

[아트프로젝트 율로]의 <빙글다>는 봄꽃들을 보며 초조해하는 코스모스에게 너만의 시간을 기다리며 불안을 떨쳐버리라고 토닥여준다. 현대무용만의 다채로운 몸짓으로 김민국이 안무한 <빙글다>는 세상살이는 다 때가 있는 법이라고 불안해하는 청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건넸다. [무브먼트 나인]은 현대무용 <Took>에서 우리 삶에 있어 노동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묻는다. 안무를 맡은 박수인은 기계처럼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몸의 언어로 노동현장의 한 곳으로 관객을 데려가는 듯했다.

[전통춤회 무어]는 정중동의 유려함과 정적미의 단아함과 한의 비장미가 깃들어 있는 이매방류 <살풀이춤>을 찾다. 남도 시나위 장단에 동작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맺고 푸는 움직임 속에 강약이 살아있다. [짓무용단은 이매방류 <승무>

를 무대에 올렸다. 훌춤으로 봐왔던 승무는 다섯 명의 장삼 놀음과 북가락으로 고해의 바다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하듯 더 크고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계절이 바뀌기 전에 더 많은 가을꽃을 보러 떠나고 싶게 만드는 공연이었다.

/ 편집실



3



4



5



6



제10회 지역문학작품 교류전

2023. 10. 18. ~ 22.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한국 문단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문단의 소중함과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부산문인협회(회장 이석래)가 매년 개최하는 지역문학작품 교류전이 올해 10회를 맞이했다. 경남 6점, 광주 5점, 대구 9점, 대전 5점, 울산 5점, 인천 5점, 전남 5점, 전북 3점, 제주 5점, 청주 5점, 포항 3점, 영월 3점, 서울 8점, 부산 90점 15개 지역에서 총 164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전시를 열었다.

- 1 김호윤(서울)_사라예보의 장미
- 2 이근모(광주)_동백꽃III
- 2 이석래(부산)_열치 털기



시와 수필 등 다채로운 작품들의 향연에 눈길을 돌릴 틈이 없었다. 특히 가을과 부산을 주제로 글을 써 내려간 작품들에 시선이 머물곤 했는데 그중에 한 작품을 소개해본다.

오륙도

차정연

바다를 품은 오륙도

물살이 곁칠수록 빛을 물고 오는 곳에

산란한 주파수들이 모여온다

붉은 동공에 그물을 낚아 올리던 꽃대처럼

중일 햇살에 충전되어

월드 엑스포의 문신을 전승하는 중이다

연분홍 길 너머 길을 열며 어진 꽃망울을 켜다

등대는 이따금 흐르는 주파수에 귀를 기울인 채

만선이 다가오는 회로 사이로 오래된 운율을 삼킨다

새벽녘 일출은

깊고 둥근 정수리를 들고 일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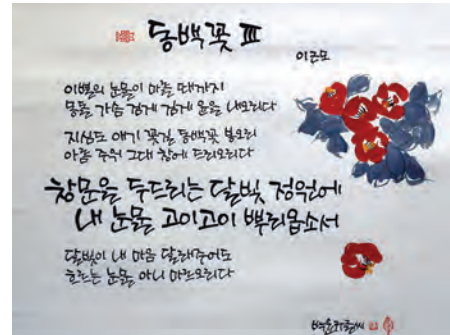
넘실대는 물결에 바스라지는 침묵의 음파

귀 기울이면 파동치는 모스부호들이 번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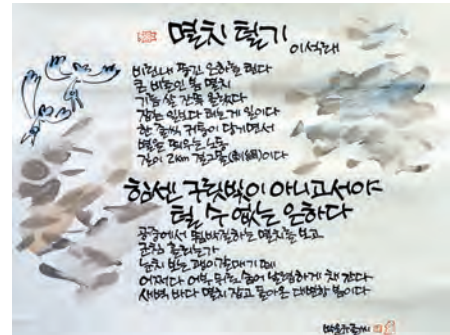
시화전뿐만 아니라 10월 20일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는 ‘백석 시인의 삶과 사랑: 나타샤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한 이동순 시인의 강연도 열려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말을 주로 배치하고 고향의 정서를 듬뿍 담은 백석의 시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았다.



1



2



3

이석래 회장은 “작가는 보편타당한 진리를 구현하고 인간의 실존에 대해 고민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글로써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각 지역과의 교류는 서로에게 영감과 창작 의욕을 선사할 것입니다”라며 지역문학작품 교류전의 의미를 밝혔다. 더불어 10년 동안 지속하여 온 이 행사가 문학의 지역성을 넘어 문학이 가진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아우르는 계기가 될 거라는 포부를 남겼다.

/ 편집실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전

2023. 10. 4. ~ 7.
부산시청 전시실

- 1 주철민_다대포거인
- 2 류재수_회오리
- 3 장한_바라쿠다 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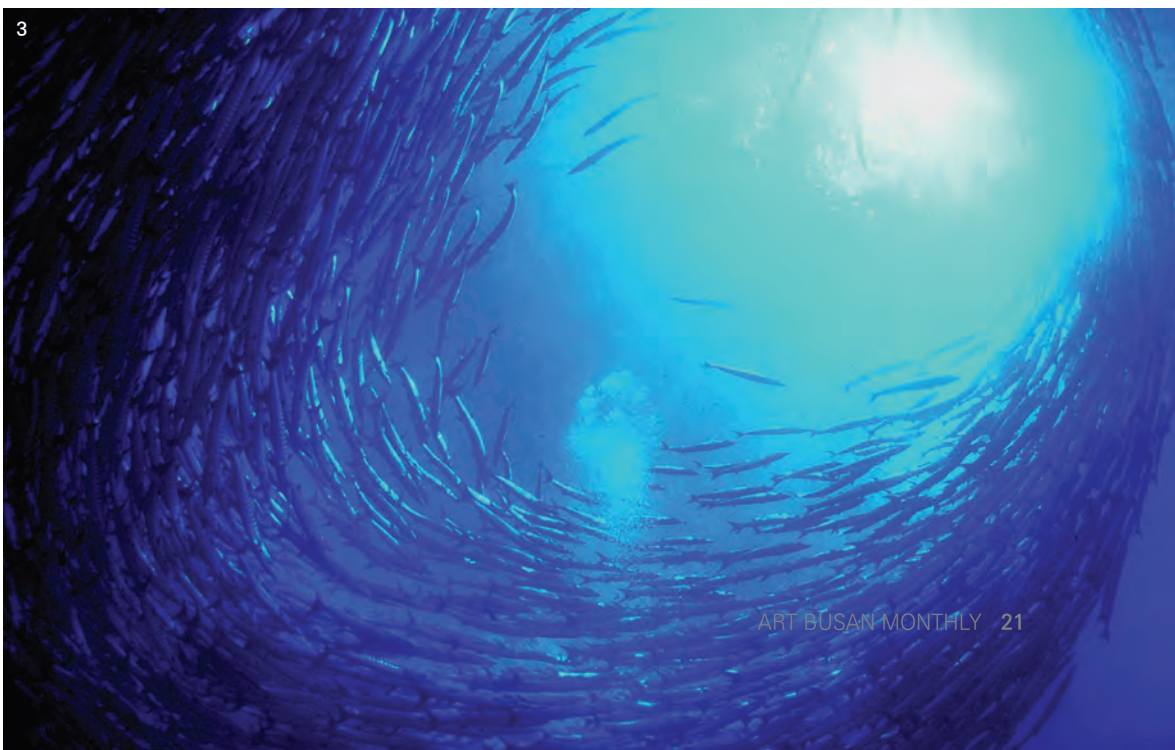
부산사진작가협회(회장 강종관)는 지난 1년 동안 자신만의 작품활동을 펼쳐온 회원들의 성과를 총망라하여 볼 수 있는 전시를 개최했다. 총 출품 수 240점 중에서 3점을 선정하여 우수작품상을 수여했으며 회원들 각각의 시선이 묻어나는 창의적인 작품들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우수작품상을 받은 주철민의 「다대포 거인」은 다대포의 아름다운 낙조의 풍경과 조형물이 잘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류재수의 「회오리」는 춤을 추고 있는 무용수의 형태를 사진에 그대로 노출 시켜 회오리 치고 있는 형태가 제목에 부합하는 작품으로 탄생했고, 장한의 「바라쿠다 떼」는 엄청난 수의 무리가 균형을 이루며 이동하는 게 특징인 농어목 꼬치고기 바라쿠다의 떼가 하나의 등지처럼 모양을 이루는 장면을 포착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 외에도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의 묘미를 보여주는 박중호의 「예인의 묘기」, 이제 갓 피어난 수국과 저마다의 곡선의미를 자랑하는 소나무의 모습이 도드라지는 이양상의 「산책」, 정적임과 역동적임 속에서 균형을 이루는 백로의 이미지를 재현한 권정욱의 「백로섬터」 등의 작품이 출품되어 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 편집실



제6회 작강연극제

2023. 10. 12. ~ 19.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올해 6회를 맞은 작(지만)강(한)연극제가 부산예술제와 함께 열렸다.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총 4작품이 공연됐고 마지막 날 공연 후 열린 폐막식은 시상식을 겸했다.



극단 [판플] <네 아가리 속의 위선, 그리고 네 주먹 속의 진심>

(10. 12.(목) 오후 7시 30분, 작/연출 양재영)은 인간관계 속 미묘한 위선과 신경전을 맛깔나게 극화했다. ‘현실 말투’ 그 자체인 대사와 발성은 세 명의 배우를 주변에 존재하는 누군가로 여기게 했다. 복싱 연극을 준비하는 극단 소속 연극인이라는 설정 또한 <네 아가리 속의...>와 일치하는 것이기에 현실과 극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설정으로 주효했다. 스마트폰과 화면 연출을 실시간으로 적절히 활용한 덕에 무대미술과 배경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음에도 시각적인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었다. 복서 의상에 글러브를 끼고 열연한 김혜원 배우는 ‘우수연기상’을 받았다.

극단 [드러그맨션] <심심해(心心寒)>

(10. 14.(토) 오후 6시, 극작 전여정/연출 김재욱)는 흔들리는 청춘의 마음을 보듬는 잔잔한 위로극이다. 깜빡이는 전구로 손님의 마음을 읽는 듯한 신비한 카페의 주인이 스스로를 ‘B급 인생’이라 자조하는 배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스토리 라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는 전개된다. 안톤 체홉 <갈매기> 속 니나를 연기하는 장면은, 이은주라는 배우가 극 중 역할을 연기하는 중에 또 다른 배우를 연기하는 것으로 명장면이라 할 만했다. 이은주 배우는 작강연극제 3번째 출연 만에 ‘전성환 연기상’의 영예를 안았다.

극단 [에저또] <빨간 버스>

(10. 17.(화) 오후 7시 30분, 극작 김지연/연출 최재민)은 한평생 고생한 어머니와 철없던 아들을 주인공으로 한 가족극이다. 최재민 연출가는 “가족과 부모의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싶었다”고 연출 의도를 밝히기도 했다. 멋지게 개조한 빨간 버스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간다는 서사 아래, 과거 어렵던 시절의 이야기와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리사랑, 자식이 느끼는 죄스러움 등이 두 배우의 연기력에 기반해 펼쳐졌다. 글을 쓰고 연기도 한 김지연 배우가 ‘우수연기상’을 받았다.

극단 [우릿] <악연-스무 번째 생일 소원>(10. 19.(목) 오후 7시 30분, 극작 이하슬/연출 강인정)은 아동학대와 트라우마를 다룬 작품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배제하고 현상과 실체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뒤틀린 구조의 배경은 시작점이 주인공의 '뇌내망상' 속임을 짐작하게 하는 증거이자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여 주었다. 데이비드, 아이작, 패런이라는 영어 이름은 스토리 상 중요하기도 했지만 극에 비현실성을 더하는 효과도 있었다. 이번 연극제 작품 중 무대미술키가 가장 화려했고 음향 및 조명 활용도가 높은 작품이었다. 탁월한 발성으로 좋은 연기를 보여준 강우혁 배우는 '우수연기상'을 받았고, 강인정 연출가는 '한형석 연출상'을 받았다.

제6회 작강연극제 '대상'의 주인공은 <악연-스무 번째 생일 소원>으로, 이로써 극단 [우릿]은 첫 참가에 3관왕을 차지했다. 강인정 연출가는 "작강연극제에 관객으로 왔었다. 이번에 상을 하나라도 받는 게 목표였는데 이루었다. 고생한 배우들과 조연출, 작가님, 도와준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 작지만, 커가는 극단이 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연극 본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강연극제가 '작지만'보다는 '강한'에 방점을 찍으며 성장해 가길 기원해 본다.

/ 편집실

- 1 극단 우릿_악연-스무 번째 생일 소원
- 2 극단 판플_네 아가리 속의 위선, 그리고 네 주먹 속의 진심
- 3 극단 에저또_빨간 버스
- 4 극단 드로그맨션_심심해(心心奚)



2023 부산영화제 〈거기, 모든이들〉

2023. 10. 21. 오전 11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1,2 거기, 모든이들_스틸컷
- 3 공동구역_스틸컷



1



2

한국영화 천만 관객시대, 한국영화 르네상스 등등 높아진 한국영화의 위상을 수식하는 말은 넘쳐 나지만 촬영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스태프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다. 재능을 저당 잡히는 게 당연한 듯, 쥐꼬리나마 열정페이이라도 받는다면 다행인 셈이다. 좋은 시나리오,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유명 배우, 최적의 촬영 현장이 갖춰지더라도 스태프가 없다면 명작은 탄생하기 힘들다. 부산영화인협회(회장 서영조)는 2023 부산영화제를 통해 촬영 현장을 지키는 스태프들의 이야기를 담은 〈거기, 모든이들〉을 제작·상영했다.

‘엔딩까지 무사히 찍을 수 있을까.’

감독의 안하무인 태도에 스태프들은 현장을 떠나고, 감독의 친구이자 현장을 챙겨야 할 조감독마저 지쳐간다. 설상가상 촬영을 허락받은 창고주인의 변심으로 로케이션 사용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현장 밤에 질려 따로 개인 도시락을 먹은 배우들이 배탈이 나면서 촬영은 자꾸 지연된다. 시간이 지연되면서 다른 장면을 먼저 찍자는 제작부의 제안에 감독은 폭발하고 급기야 조감독과 언쟁으로 현장 분위기는 싸늘해진다. 기약없이 대기하는 단역 배우와 얼굴 없는 스태프들. 포기 대신 대책을 찾는 스태프와 녹록지 않은 촬영 현장이 〈거기, 모든이들〉에 소개되고 있다.

부산영화인협회 회원들은 일 년여의 주말마다 워크숍을 열었다. 지난 9월 초 경북 의성에서 영화를 찍고 편집을 거쳐 이날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상영했다. 총괄 프로듀서 및 각본 서영조, 연출 및 촬영감독 김현미, 제작실장 강선우, 조연출 도명지, 촬영보조 양기성, 음향감독 및 조명감독 정다운, 조명보조 김진규, 현장스케치 김희동이 맡았다. 조감독 재우 역 서재하, 감독 오강기 역 강우람, 운동역 역 최환경, 이정희 역 천화성, 동국 역 류승열, 해식 역 박성호, 영숙 역 강정화, 정숙 역 장순희, 은

주역 금지숙, 미선 역 김정선은 배우 라인업이다.

상영 후 이번 영화에 함께했던 회원들은 간단한 소회를 나누었다. '작품에 나오는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가 아직도 낯설지만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다'는 회원부터 '많은 공부를 하면서 중년 이후의 삶은 영화의 길로 주욱 나가겠다'는 회원, '여덟 편의 작품에 출연했지만 여전히 현장이 설레인다'는 회원, '새로운 작품을 할 때마다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간다면 재미와 함께 성장의 기쁨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회원 등등. 서영조 회장은 '한 편의 영화를 촬영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상영 후에 낯설고 어색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거기, 모든이들> 상영에 앞서 2019년 부산영화인협회 회원들의 참여로 완성한 <공동구역>을 먼저 상영했다. <공동구역>은 고령화 사회에 노후자금과 고독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한 집에 모여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공동구역을 사수하려는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통해 집과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답



을 구하고자 했다. <공동구역>은 정음실버영화제에서 대상을, 충무로단편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울산단편영화제에서 대상을, 제주전국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첫 시사를 마친 <거기, 모든이들>도 작으나마 결실을 맺어 참여했던 회원들이 영화라는 매력에 더 빠져들게 하는 동기가 돼주길 기대해본다.

/ 편집실



가곡과 아리아의 밤

2023. 10. 13.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음악협회(회장 권성은)가 올해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서 '클래식 맛집'다운 면모를 뽐냈다. 39세 이하 청년음악가로만 구성해 2020년 창단한 [부산청년오케스트라]는 지휘자 박성완의 지휘 아래 안정적이고 우수한 연주를 선보였고, 해설은 정제나 아나운서가 맡았다.

가곡과 아리아의 밤 첫 곡은 활기찬 도입부와 웅장한 연주로 오케스트라의 진가를 보여주는 오페레타 <아름다운 갈라테아> 서곡이었다. 이어서 바리톤 박하민, 소프라노 고민진 신인 음악가가 무대에 올랐다. 박하민은 굿거리장단 기반에 우아한 곡조로 재탄생한 「뱃노래」와 오페라 <안드레아 쉐니에> 중 「조국의 적이라고?」를, 고민진은 남도민요 「새타령」과 오페라 <마술피리> 중 「두려워 말거라 나의 아들이」를 불렀다. 청중을 쥐락펴락하는 무대 매너가 돋보였던 바리톤 김우주는 「청산에 살리라」와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를 선보였고, 소프라노 정수정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담은 「동심초」를 짙은 서정성이 느껴지게 소화한 데 이어 오페라 <가면 무도회> 중 「이곳이 그 두려운 장소」 역시 연기를 곁들이



며 호소력 있게 선보였다. 이 곡에선 종소리 이후 팀파니가 끌고 가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도드라지면서 '오케스트라 맛집'이라는 표현이 생각나기도 했다.

암묵적인 2부의 시작은 [부산청년오케스트라]가 영화 <대부> OST이기도 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단독 연주로 열었다. 이윽고 레몬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오른 소프라노 강수진은 청아하고 밝은 음색으로 먼저 「아리아 리랑」을 불렀다.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를 대표하는 곡 중 하나인 「새들은 나뭇가지 사이에」를 부를 때는 오페라 <호프만 이야기> 속 자동인형이 된 듯한 움직임으로 곡의 매력을 극대화해 객석의 환호를 받았다. 바리톤 채범석은 아름다운 가사로 사랑받는 「님은 오시는지」에 이어 세기의 바람둥이를 그린 오페라 <돈 지오반니> 중 「마님, 이것이 목록입니다」를 불렀고, 공간을 가득 채우는 성량이 돋보인 소프라노

변향숙은 「내 마음의 강물」과 오페라 <라 왈리> 중 「그렇다면 나 멀리 떠나리」를 선보였다. 이날 유일한 테너 출연자였던 조윤환은 「산노을」, 오페라 <여자는 다 그래> 중 「사랑의 산들바람」을 불러 풍부한 표현력과 전달력, 담백하고 맑은 목소리로 몰입감 있는 무대를 선사했다. 마지막으로 전 출연진이 「그리운 금강산」을 앙코르로 부르면서 '성악 맛집'의 대미를 장식했다.

여유 있게 무대를 이끄는 지휘자와 악기 하나하나의 매력까지 살린 오케스트라 연주, 실력 있는 성악가의 노래는 올해 가곡과 아리아의 밤을 찾은 이들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2시간을 선물했다. 클래식은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으로 즐기면 된다는 것을, 이날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라면 모두 느끼지 않았을까.

/ 편집실



꽃 예술전

꽃으로 만나는 가을

2023. 10. 5. ~ 7.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부산꽃예술작가협회(회장 이미라)가 제61회 부산예술제를 맞이하여 가을의 정취를 담은 꽃 예술전을 선보였다.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한국의 꽃 예술을 발전시키고자 매년 다채로운 꽃 예술전을 개최하고 있는 부산꽃예술작가협회가 이번에는 가을의 풍미를 만끽할 수 있는 '꽃으로 만나는 가을'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열었다.

- 1 초대작가_이미라
- 2 출품작가_이계향
- 3 초대작가_김금실, 출품작가_김신숙
- 4 출품작가_최문선, 출품작가_최윤공미, 초대작가_구명계
- 5 출품작가_황해정, 출품작가_안정숙, 출품작가_장지유



자연이 주는 가을의 보석 같은 열매와 다양한 꽃을 소재로 아름다운 선, 색, 여백이 느껴지는 동양적 미를 표현한 동양화(東洋花), 현대적인 오브제를 이용한 감각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현대화(現代花)로 나누어 전시를 구성했다.

올해는 전시실 밖으로 공간을 확장해 병풍을 배경으로 장독대 위에 펼쳐지는 굽직한 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 가을의 풍경 속에서 유영하는 물고기를 형상한 대형 작품 등 무한한 생명력으로 인간의 삶에 활력을 주는 자연의 재료를 활용해 예술성을 발현시킨 설치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 편집실



2



3



4



5



세계 음다풍속

2023. 10. 21.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

‘다선일미(茶禪一味) 즉 선으로부터 출발하기에 일본은 다도 자체가 선(禪)입니다. 선종에서 포교 차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두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다도이기에 동작 하나하나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또한 다도라는 행사를 통해 연대의식을 느끼고 우리는 하나라는 단결력을 갖습니다. 도코노마(このま)에 큰스님이나 선인들의 명언이 적힌 족자를 거는데 그게 바로 그날의 테마가 됩니다. 손님은 족자에 적힌 글귀와 꽃과 화병, 다완을 보며 찾자리를 준비한 주인 의 메시지를 읽고 그와 하나의 마음이 되도록 합니다.’

박순희차문화연구소 박순희 소장으로부터 일기일회(一期一会)의 정신을 높이 사는 일본 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말차와 다과를 대접받았다. 이왕이면 화과자를 먼저 먹고 차를 마셔보라는 안내도 따랐다. 짭짜름 했던 말차가 이렇게 맛있었나 싶게 달고 부드럽게 다가왔다. 다도를 배운 적은 없지만 다완을 다루는 행동과 마음도 조신해졌다.

차의 역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오른다. 최근에는 항암효과나 성인병 예방, 다이어트나 피부미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예전에 비해 차에 관심이 많아졌다. 요즘은 국화차, 연꽃차 등 꽃차들도 많아져 눈과 입을 즐겁게 해준다. 그러나 바쁜 일상에서는 잎차를 우려서 마시기까지 과정이 녹록지 않기에 차를 가까이 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

차를 마시는 문화는 한·중·일 삼국에 존재하지만 차를 대하는 태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중국은 차를 예술의 일종으로 바라보기에 '다예(茶藝)', 일본은 지극한 경지에 이르는 도에 비유하기에 '다도(茶道)', 우리나라는 예절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다례(茶禮)'라고 표현한다. 또, 중국은 차의 향을, 일본은 차의 빛깔을, 우리나라는 차의 맛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부산차문화진흥원(원장 이미자)은 10월 21일 낮 12시부터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세계음다풍속'을 열고 그윽한 차향을 전했다. 차문화의 생활화와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해 차문화 복식연구, 전통차 문화교육 및 홍보, 차문화를 통한 국제 친선교류에 앞장서 온 차문화진흥원은 부산예술

회에서 '세계음다풍속'을 통해 나라별 다양한 차문화를 전하고 있다.

올해는 여여예음차문화원이 홍차, 신한다례원이 한국의 황차, 한국문화르네상스가 중국차, 박순희차문화연구소가 일본차를 소개하는 등 한중일 3국에서 즐겨 마시는 차와 다식을 선보이며 시민들의 발길을 붙들었다. '집에서 마셨던 우롱차는 이런 맛이 아니었는데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르다' 등 제대로 우려낸 차맛에 매료된 반응이 여기저기 쏟아진다. 차맛을 알고 나니 다른 차도 궁금해져 옆에 있는 부스도 방문하게 된다. 시민들은 향긋한 다향과 함께 다기, 향로, 다과, 좋은 차 고르는 법 등 차를 이루는 다채로운 문화를 접하며 가을의 정취에 흠뻑 젖어들었다.

/ 편집실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이음전통춤연구회 '戀書'

2023. 9. 2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공기의 흐름이 바뀌지 않아 늦여름의 더위가 남아 있던 9월 20일, 부산예술회관에서는 [이음전통춤연구회]의 '연서戀書'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났다. 우리 문화에 담긴 선조들의 예술혼과 의미를 전통춤으로 구성하고 무대에 오르기 전 춤꾼들의 마음가짐을 연서로 띄웠다.

'수백 가지 일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편지가 그중 하나다'는 말도 있듯이 한 통의 편지에는 사람의 온기와 여운이 서린다. 대중가요 노랫말을 옮겨 쓰기도 하고 시 한 편을 통째로 써 보낼 때도 있지만 봉투에 담기 전까지 쓴 문장을 읽고 또 읽고, 마음이 잘 담겼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는 게 편지다.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편지, 연서에는 그리움과 간

절함이 더 짙다. 지난한 춤길을 걷고 있는 여섯 춤꾼의 마음이 그래서 더 애뜻하다.

김진홍류 <승무>로 무대를 연 강미선은 40여 년 춤길을 걸어온 자신에게 연서를 띄웠다. '가보자, 그 길이 맞는지, 가보자, 맞지 않는 길은 하늘 아래 없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독백처럼 들리는 연서로 시작한 강미선은 공연을 찾은 관객들을 정중하게 마중하듯 장삼놀음과 북가락의 목직함으로 <승무>의 멋을 선사했다. '너니까 좋은 거다. 너라서 사랑스러운 거고 너이기 때문에 함께 하고픈 거다'. 이경화는 영남 지방 춤의 질박한 멋스러움과 은근한 정감이 깃든 권명화류 <소고춤>을 찾았다. 오랜 시간 춤을 춰온 그는 단순하지만 신



강미선



이경화



손미란

명이 살아있는 춤사위로 선한 햇살이 내려앉는 들판의 무르익는 가을의 향기를 무대 위에 펼쳐 놓았다.

손미란은 하얀 명주에 사모곡을 엮었다. '목소리만 듣고도 무슨 일이 있는지, 당신 아픈 건 꼴찌 삼킨 채 다 큰 딸 안 먹고 아플까 걱정만 하시는 어머니, 당신 건 하나도 가진 것 없이 다 내주시는 어머니'를 위한 춤꾼의 애뜻한 마음이 이 매방류 <살풀이춤> 그 하얀 명주에 실렸다. 자연스러운 움직임 속에 맺고 푸는 품위가 있는 손미란의 <살풀이춤>은 단아했다. 내면적 흥을 안으로 삭이며 장중한 멋을 안고 있는 김진홍류 <허튼춤>은 황지인이 선보였다. 황지인은 '함께 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조금 떨어내고 기꺼이 물들어 가는 시간이 그지없이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방향과 마음이 비슷한 춤벗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연서를 보냈다. 삶의 편린을 예술의 매듭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춤으로 느낄 수 있었다.

지영숙은 동해안 오구굿 중에서 창호지를 길게 오려 만든 지전을 양손 또는 한 손에 들고 망자의 원과 한을 풀어주는

<지전춤>을 쫓다. '한 계절이 또 떠나는구나.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움을 내딛다보면 또 한 계절을 만나겠지'. 주저앉는 듯 다시 일어서며 허공에 흩날리는 지전까지, 지영숙의 춤사위는 이승에서의 허망한 삶을 위무했다. 흥겨운 장단과 화려한 춤사위가 돋보이는 김경미의 <진도북놀이>가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양태옥류 박강열제 <진도북놀이>는 가락이 다양하고 동작이 커 역동적이며 정교한 춤사위와 설장구 가락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는 춤이다. 김경미는 '춤을 추는 삶을 살겠다는 춤꾼이 왜 그렇게 긴장했냐, 잘하려 하지 말고 즐기며 하라'던 열렬한 지지자이며 냉철한 비평가였던 아버지를 추억했다.

부산의 중견 춤꾼들이 모여 올곧게 전통춤을 전승하고 있는 [이음전통춤연구회]의 공연에 [젊은소리 쟁이]가 현장감 있는 생음악 연주로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11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청흥동 국악예술단]의 이야기가 있는 가야금병창 '얼쑤! 한바탕 놀아보세'이다.

문의 051)631-1377 / 글_정지영 / 사진_박병민



황지인



지영숙



김경미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디스트릭트 7展

2023. 11. 27. ~ 12. 3.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신발은 우리의 일상에 늘 함께 있는 의복의 일종으로, 흔히 공
산품이자 산업적 활동의 결과물로 취급된다. 그런 신발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는 전시가 열린다.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디스트릭트 7' 전이다.

2017년 수제화 공방 슈터폴스튜디오로 시작한 단체 [홀
라웨이브]는 신발 커스텀을 연구하고 제작하며 '슈메이킹
Shoemaking'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대중적이고 일상화된
소재인 신발은 굉장히 조형적인 구조를 가졌지만, 고정된 형
태로 인한 표현의 한계도 존재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바로 그러한 표현의 한계를 깨고 신발 커스텀을
예술작품으로 승화하고자 한다.

전시명에서 알 수 있듯 영화 <디스트릭트 9>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전시는 '미확인 비밀 신발 연구 기지'와 같은 분위
기를 추구한다. 홀라웨이브 대표이기도 한 김병희(신바남) 작
가는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버려진 의류, 원단, 마스크 등을 이용한 작품
을 선보인다. 걸을 때마다 찰랑거리는 프린지 디테일을 활용
해 다채로운 실루엣과 화려한 무브먼트를 연출한 작품은 디
테일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오우준(woojun) 작가
의 작업물이다. 함정훈(Patina Country) 작가는 패션문화 발전
의 초석이 된 전통적인 기법과 빈티지 의류에서 영감을 얻
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천연염색 직물의 컬러감, 세월의 흔
적으로 드러난 자연스러운 페이딩, 사시코(Sashiko, 일본식 전통 자
수 기법의 하나) 스티치를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박종갑(hmnk)



- 1 김병희 작가
- 2 길민철 작가
- 3 함정훈 작가
- 4 박종갑 작가
- 5 오우준 작가



작가는 과거 스트리트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색상과 재질을 활용하여 핸드메이드 신발의 '힙'함을 드러낸다. 그밖에 김한결, 길민철(mincha), 최대규(DL), 김민준, 이선경(gyeong), 최준영(shed boyz) 등 10명의 작가가 참여해 7개 테마로 작업한 커스텀 작품을 보여준다. 12월 2일과 3일 양일간 직접 커스텀 신발을 만들어 보는 예술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예약은 선착순이다.

김병희 작가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가수가 노래를 하고 조각가가 조각을 해서 예술을 표현하듯 우리는 신발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메시지를 담는다”고 말하며 ‘디스트릭트 7’ 전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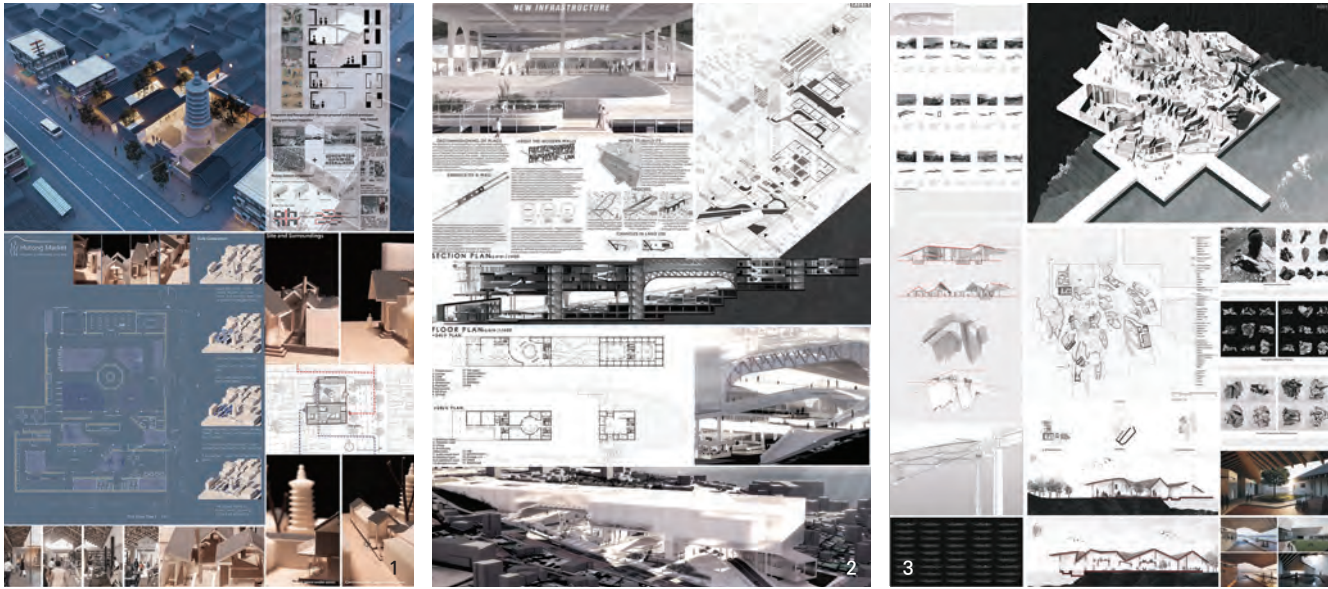
The 39th KIA International Competition

대상_리 Rui 'Green of Life' 덕진대학교

글로벌 장소성의 재고 제39회 부산국제건축대전 일반국제공모

2023. 9. 20. ~ 24. 벅스코 2B홀

부산 도시건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개최하는 부산국제건축대전 수상작 전시가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벅스코 2B홀과 부산예술회관 전시장에서 두 번에 걸쳐 있었다. 39회를 맞은 부산국제건축대전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건축가회(회장 이봉두)가 공동주최하고 부산건축가회, 일본건축가협회 킨키지부, 중국톈진건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올해는 개최 이래 최대 인원인 494명이 368개의 작품을 출품했다.



1 우수상_Qu Qianhui 「Hutong Market」 톈진대학교
 2 우수상_박규민 「NEW INFRASTRUCTURE」 부경대학교 3 우수상_이수 「Crack in the hurt」 전남대학교

‘글로벌 장소성의 재고, 팬데믹 이후 모임과 이벤트가 창발하는 새로운 장소 개념의 정립’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일상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장소성의 재고라는 주제를 고려할 때 특정 장소에 적절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해석,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공공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 개념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3차례의 심사를 거쳐 톈진대학교 Li Rui의 「Green of Life」에 대상, 부경대학교 박규민의 「NEW INFRASTRUCTURE」와 전남대학교 이수의 「Crack in the hurt」, 톈진대학교 Qu Qianhui의 「Hutong Market」에 각각 우수상을 안겼다.

With Covid 상황에서도 유용할 대상 수상작 「Green of Life」는 ‘매우 흥미롭고, 깊이 있고,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깊게 관찰한 작품’으로 ‘특히 시간에 집중한 것은 놀라운 통찰’이며, ‘주인공인 사람보다 그들 뒤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제외된 사람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을 들었다.

「NEW INFRASTRUCTURE」는 ‘영도의 오래된 지역과 새로운 지역 사이의 경계를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로 기능을 담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장소로 만든 점이 흥미’로웠고, 「Crack in the hurt」는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에 증가한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목’했으며, 「Hutong Market」은 ‘서점이 동네의 거점이었던 상황을 분석하면서 비어있는 땅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주변과 동화시키고, 새로운 작동이 일어나는 제안’이 돋보였다.

우대성 심사위원장은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없다는 통설은 잘못된 편견임을 알게 되었다. 한중일은 상황이 서로 다르지만 ‘개인화, 고립화, 사회적 소통의 필요’는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점도 확인되었다”고 했다. 또한 부산국제건축대전이 보편적이며 공통된 문제를 지속해서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장이 되길 바랐다.

/ 편집실

전국 사진인들이 만들어 가는

제35회

부산전국사진공모전

2023. 11. 15. ~ 17.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 1 금상_표석창 댄싱축제 2 은상_주경미 가을즈음
3 은상_주봉재 일터로 4 동상_서광수 태권
5 동상_임점근 작업 6 동상_최미연 시간의 빛

창작 의욕을 고취해 사진 인구의 저변 확대를 꾀하고 사진예술 문화의 진흥 및 사진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부산전국사진공모전'이 35회째를 맞았다. 지난 9월 20일까지 전국 사진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 결과, 총 358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수상작은 입선 포함 72점이다. 금상은 표석창의 「댄싱축제」, 은상은 주경미의 「가을즈음」과 주봉재의 「일터로」, 동상은 서광수의 「태권」과 임점근의 「작업」 그리고 최미연의 「시간의 빛」이 받았다. 심사위원단(심사위원장 김효숙, 심사위원 이흥기, 김동철, 이복현, 김재문)은 「댄싱축제」는 “무용수의 열연에서 동감으로 젊은이의 열정을 아낌없이 표현한 수작”으로, 「가을즈음」은 “초광각 렌즈의 강점을 이용해 백일홍이 핀 아름다운 풍





2



3

광을 돋보이게 표현한 점이 우수한 작품”으로, 「시간의 빛」은 “피사체를 단순하고 과감한 구도로 빛을 아주 잘 표현한 작품”으로 평했다.

수상 작품은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시민회관 1층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시상식은 11월 15일 오후 4시, 전시실에서 열린다.

문의_051)631-4111 / 편집실



4



5



6



악기의 제왕, 솔로 악기 피아노의 화려한 변신

2023 부산음악대축제 III

그랜드피아노 페스티벌

2023. 10. 2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언젠가부터 인터넷 매체를 통해 K컬처와 관련된 해외의 뜨거운 반응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음악인으로 또한 교육자로 이런 반응이 실로 놀랍고 신기하며 감사한 마음까지 드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콩쿠르의 한국 입상자가 대거 탄생하면서 이제는 한류에 K클래식까지 포함되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해외의 어느 권위 있는 저명 피아니스트는 해외 유수의 콩쿠르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하였다. 예술은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올림픽이 아니니 경쟁을 멈추라고. 그 말씀에 백번 동의도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동기 부여가 되거나 음악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경제적 지원을 위한 콩쿠르 도전은 또 다른 의미로 봐야 할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최근 한국에는 어린 음악도들을 위

한 많은 콩쿠르가 존재하고 또 생겨나고 있다.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젊은 음악도들 즉 음악대생들은 그리 선호하지 않는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인지 그들을 위한 음악회가 공공단체에서부터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64명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아주 반가운 음악의 장이 부산에서 펼쳐졌다. 부산 시내 각 대학의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대거 참가하는 음악회로 부산문화회관에서 지난 10월 20일에 개최되었다. 이 음악회는 부산음악협회에서 주최하는 2023 부산음악대축제 세 번째 기획으로 '그랜드피아노 페스티벌(Grand Piano Festival)'이다.

악기의 제왕으로 불리는 피아노는 독주 악기로 음대 진학

을 위해서는 솔로 작품 위주로 공부하며 대체로 대학에 진학해서 앙상블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피아노 연주회는 주로 솔로 무대가 기본적으로 이뤄지고 연주자 수도 다른 악기에 비하여 소수이기 때문에 때론 피아노 음악회는 길고 지루하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피아노 전문 연주단체들의 새로운 시도로 2명 이상의 피아니스트들이 모여서 합주를 하는 형태의 연주회가 등장하면서 피아노 연주회도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도 있고 지루해 할 관객을 고려하여 흥미로운 작품들을 편곡하여 무대에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젊은 음악도들을 위해 준비된 신인 음악회 등의 외부 공공단체의 연주회에서는 여전히 솔로 피아노 작품의 연주 기회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각 대학에서 한 명의 피아니스트만이 외부 연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번 부산음악협회에서 기획된 피아노 합주는 젊은 음악도들에게는 다양한 방식으로 연주하는 신선한 경험이며 다른 대학 연주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음악회인 것이다. 더욱이 많은 관객 앞에서의 대형 무대 경험은 그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특별한 선물이 되었을 것이다.

대학생을 위한 그랜드피아노페스티벌은 2022년(유명옥 전 부산음악협회 회장)을 시작으로 올해 2023년(권성은 현 부산음악협회 회장)에도 이어져오고 있는데 김병기 부산음악협회 피아노 분과 위원장이 2년째 음악감독으로 이 연주회를 매년 새롭게 기획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4대의 피아노에 8명의 피아니스트가 한 팀으로 연주를 하였는데 부산음악협회에서 제공된 악보를 연주팀 대표들의 뽑기를 통하여 작품과 연주 순서가 결정되었다고 전해진다. 대학팀 외에 첫 스테이지와 마지막 스테이지에는 신인 성인 연주자들로 기획되어서 이들에게도 무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학팀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한 부산음악협회의 포괄적인 배려가 느껴졌다.

연주회에 참가한 부산시의 대학은 연주 순서로 동의대학교, 동아대학교, 경성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가 참가하여 각 스테이지 별로 4대 피아노 합주의 아름다운 기량을 선보였다. 여기에 연주된 작품은 J.Brahms Hungarian Dance No.1, 4, 5, C. Gounod Faust Waltz, C.Saint-Saens Danses Macabre op.40, K.Olson A Scott Joplin Rag Rhapsody, A. Khachaturian Sabre Dance, F.Liszt Hungarian Rhapsody No.2, G. Bizet Carmen Fantasi, M.Glinka ouverture zu "Ruslan und Ljudmila", W.Gillock Champagne Toccata, L.v. Beethoven Egmont Overture가 연주되어 적지 않은 스테이지의 연주회임에도 관객들이 충분히 즐기고 호응할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매 스테이지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연습하였음을 연주로 느낄 수 있었다. 음대생의 풋풋함이 묻어나는 팀부터 전문연주자 못지않은 팀워크를 가진 팀, 그리고 관객을 위한 퍼포먼스를 겸한 팀까지 모든 스테이지에 관객이 집중하였고 노고에 대한 진심으로 따뜻한 축하의 박수가 이어졌다. 전문 연주가의 클래식 연주회 객석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가족적인 분위기의 음악회였다. 특히 주최 측이 호응도 유도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가미하여 노력하고 있음이 엿보였다.

아름다운 취지의 연주회를 감상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음악회의 지속성에 관하여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음악회는 부산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또 희망해본다. 이런 지원은 젊은 음악도들에게는 힘과 격려가 될 뿐 아니라 부산시민에게도 듣기 편한 클래식 음악을 제공하여 예술문화 육성의 기회가 되어 부산이 클래식 예술문화의 도시로 거듭나게 되는 연쇄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글_정년경 신라대학교 청조공연예술학부 음악전공 교수

명금일하 대취타~

조선통신사

OK! K-POP 이상의 감동과 환호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 주최하고 부산예술단에서 주관한 '조선통신사OK' 공연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 공연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던 조선통신사의 연희내용을 복원하고 새것을 더해 전통공연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자긍심을 키우자 마련된 무대였다. 초·중학생 3,200명과 교육가족 900명을 대상으로 3일간 6회에 걸쳐 펼쳐진 공연은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이후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 하나로도 평가되어 진다. 무엇보다 K-pop에 열광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음악과 무용 그리고 기예를 보고도 그 이상의 감동과 환호를 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공연이었다.

무대는 미디어 대북 퍼포먼스와 조선통신사 행렬, 기예부 오디션, 성신교리를 위한 전별연 잔치에 이르기까지 총 4마당으로 구성되었다. 무대 막이 오르자 프로젝션 매핑과 미

디어 아트를 접목시킨 전통 대북 퍼포먼스가 웅장하게 현대적 감각으로 펼쳐진 첫째 마당이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둘째 마당인 조선통신사 행렬에서는 대취타 연주가 이어졌다. 징을 한번 치고 연주를 시작하라는 뜻의 "명금일하 대취타" 구령과 함께 나각, 나발, 태평소 등의 관악기와 용고, 자바라, 징 등의 타악기로 구성되어 우리 전통 행진곡인 군례악을 연주하는 대취타 악대의 우렁찬 행렬이 객석에서부터 무대로 이어져 관객들의 시선을 압도하였다. 조선시대 왕의 행차나 군대 행진에서 전립(鉦笠)을 쓰고 황철리(黃天翼), 남전대(藍纏帶)의 복색을 했던 대취타 연주자의 모습은 학생들뿐 아니라 아마 어른들도 실제로 볼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조선통신사 행렬인 대취타의 연주에 이어서 조선과 일본의 친선을 도모하고 경제, 문화교류의 사절단으로 활약했던 조선통신사 기예단을 뽑기 위한 기예부오디션이 셋째 마당에 이어졌다. 이 마당에서는 줄을 땅에 놓고 하는 어릿광



대의 <땅줄타기>와 양쪽에 형짚을 곁으로 덧바르고 가운데 가죽을 오려 붙여 놓은 첩바퀴를 쳐올려 막대로 돌리면서 재주를 부리는 <버나놀이>가 광대들의 재담과 함께 이어졌다. 또한 남사당패의 기예종목 중 하나인 땅재주 가운데서 “잘하면 살판이지만 못하면 죽을판”이라 회자되는 가장 위험한 종목 중 하나인 <살판>과 당시 일본 열도를 뜨겁게 데웠던 종목이자 최초의 한류, 조선통신사의 꽃으로서 말을 타면서 부리는 전문 기예를 일컫는 <마상재> 공연도 재미를 더하였다. 사자가면을 쓰고 재주를 하는 벽사진경의 대명사인 <사자춤>도 봤는데 기예부오디션은 전반적으로 장면마다 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관객들이 가슴 졸이고 긴장하며 공연에 집중하도록 몰입과 완성도를 높인 공연이었다.

넷째 마당은 바닷길을 통해 일본으로 떠나기 전 동래부사가 조선통신사에게 열었던 전별연 잔치로 꾸며졌다. 여기에는 ‘부산예술단’의 난타공연인 <여명>과 갈군무가 돋보였던 <오고무>가 공연되었다. 이어서 무사복장을 한 채 부채를 들고 춤을 춘 예술단체 [백의]의 <비보이> 공연과 [부산여대 김해성무용단의 우아한 <부채춤>이 펼쳐졌다. 이 밖에도 판국과 채상놀음, 열두발 상모 등의 <농악> 놀이와 대형 깃발을 들고 돌리면서 재주를 부리는 <기놀이>가 함께 진행되었다. 몽클해진 관객들이 떼창으로 함께 부른 대취타의 아리랑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든 출연진이 입장하며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조선통신사 행렬은 일본 에도 막부 시절 200여 년 동안 일본을 12차례 오고갔다고 한다. 이 시기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이 성실과 믿음으로 사귀다는 뜻의 성신교린(誠信交隣) 정신으로 문화교류를 통한 평화를 추구했던 시기였다.

‘신조선통신사’라 할 수 있는 이번 공연은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가치를 실현했다 하겠다. 최근 세계적으로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 등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국가 간 평화의 길을 열었던 선조들의 평화정신을

되새기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모범답안과도 같은 공연이었다. 이 공연을 주최한 부산시교육청 학생예술문화회관(이하선관장)의 취지도 조선통신사 기예단이 펼쳤던 여러 가지 공연을 학생들이 직접 보면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새로운 것을 더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보고 느끼며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번 공연은 부산광역시 지정 전문예술인 단체인 부산예술단에서 총괄 주관을 하였다. 부산예술단은 올 한 해 동안 한일문화교류사업으로 일본 쓰시마시와 시모노세키시 그리고 시즈오카시 등에서 조선통신사 행렬재현과 한일문화교류 공연을 이어온 부산의 문화사절단이다. 이번 ‘조선통신사OK’도 부산예술단의 김상현 대표가 총연출을 맡고, 김익현 씨가 극연출을 하며, 80여 명의 연희자들이 함께한 보기 드문 대공연이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세계에 부산을 알리는 많은 행사가 지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BTS 멤버들이 우리의 대취타와 삼고무, 탈춤 등을 곡과 무대에 녹여내며 세계인들의 문화보편성을 이끌어낸 것처럼, ‘조선통신사OK’가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하는 부산의 문화브랜드이자 문화콘텐츠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글_김해성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교수



세 번째 구인회 사진전

2023. 10. 30. ~ 11. 2.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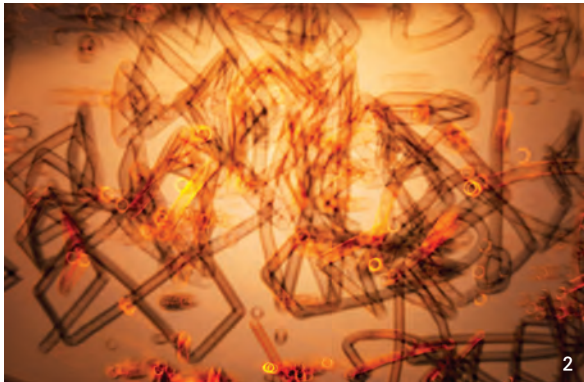
사진을 사랑하는 9명의 작가들이 의기투합했다. 부산시의회 제종모 전 의장, 지역의 원로 사진가 최부길 작가를 비롯해 라순남 정동민 전영근 심술련 김상덕 김천식 박재수 이승기 작가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사진'이라는 공통 분모 아래 모여 사진연구모임 [구인회]로 이름했다.

2020년 창립전을 열었고, 지난해는 '중구를 말하다'는 주제로 제2회 전시회를 개최했다. 세 번째인 이번 전시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부산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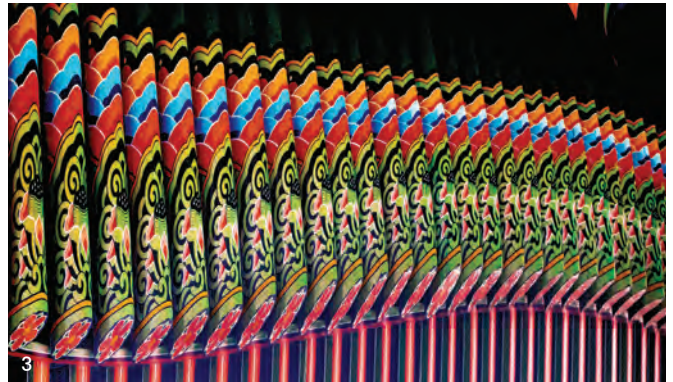
한 해 동안 각자의 관심사와 개성을 반영해 창작한 결실을 풀어놓는 자리다.

생과 사를 주제로 작업에 천착해 온 최부길 작가는 각양각색으로 치장한 허수아비들을, 김상덕 작가는 짙은 겨울 햇살 아래 빛나는 상고대를, 심술련 작가는 '창호에 닿는 선' 한 가을빛을 담은 색감으로 추억이 든 고향집 철길을, 이승기 작가는 문현동 벼룩시장의 풍경을 펼쳐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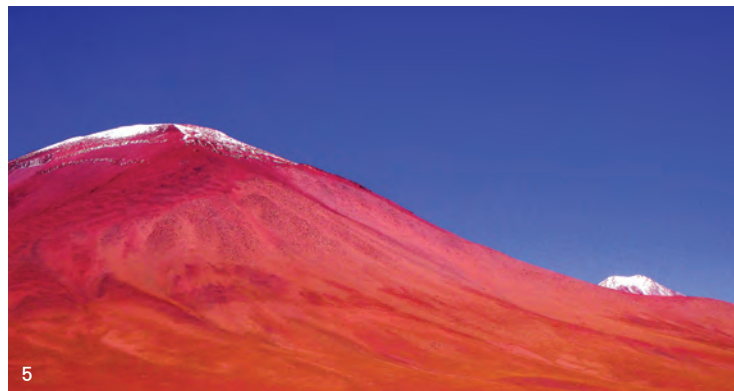
2



3



4



5



6

- 1 심술련 2 제종모
- 3 정동민 4 박재수
- 5 김천식 6 김상덕

클래식 음악을 화려한 색감의 사진으로 표현하는 정동민 회장은 “회원 모두가 한결같이 건강한 사진의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낮은 자세로 임하여 창작활동을 해온 결과물”이라며 “회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사진 창작활동을 지속해 보다 수준 높은 작품을 완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시에 많은 성원을 당부했다.

문의_010-2268-5604 / 편집실



부산예술후원회 '2023 부산청년작가 해외 탐방' 결과보고회-해외탐방에서 얻은 것을 돌아보다

202. 9. 22. 오후 5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예술후원회(회장 강의규)가 주최하고 부산예총(회장 오수연)이 주관한 '2023 부산청년작가 해외 탐방'(2023. 8. 16. ~ 27. 스페인 외 3국) 결과보고회가 9월 22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해외 탐방에 참여했던 8인의 청년작가들은 이날 직접 무대에 올라 해외 탐방을 통해 얻은 것을 풀어놓았다.

먼저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에서 보낸 10박 12일의 여정이 동영상에 담겨 흐르며 일정의 흐름을 간략하게 짚어보게 했다. 이어서 단상에 오른 변선화 건축사(부산건축가회)는 결과보고회의 사회자를 자처했다. 그는 이번 해외 탐방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길을 나섰다며, 첫 번째

는 배워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차역을 리모델링 한 '오르세 미술관', 안도 타다오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는 '피노 컬렉션', 대학 때 공부했던 그린 건축을 떠올리게 한 '풍피두 센터'를 등 3개의 건축물을 제일 인상 깊었던 건축물로 꼽으며 PPT를 활용해 설명하기도 했다.

공연 파트 참가자인 김푸름(부산음악협회) 엄하연(부산국악협회) 이다영(부산무용협회)은 현지에서 했던 버스킹을 재현했다. 김푸름 연주가가 선보인 「아리랑」 「나의 살던 고향은」은 곡에 담긴 민족 정서가 바이올린의 섬세한 선율로 극대화되는 듯

했다. 이다영 무용수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고운 선과 몸짓이 돋보이는 부채춤을 추었고 엄하연 연주자는 해외 탐방에서는 여건상 할 수 없었던 거문고 연주를 선보였다. 솔로로, 트리오로 선보인 무대는 유럽에서 했을 당시 청년 작가들과 현지 시민들이 느꼈을 정서와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듯했다.

다음으로 청년작가 8인이 모두 무대에 올라 각자 소감을 발표했다. 저마다 장르에 따라 느낀 점이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함께해서 더욱 공부가 되고 의미 깊었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준 부산예술후원회와 부산예총에 대한 감사 인사도 빠지지 않았다. 소감 발표가 끝난 뒤에는 장학민 시인(부산문인협회)이 해외 탐방에서 영감을 얻어 쓴 시를 즉석에서 낭송하기도 했다. 객석에 앉아 청년작가들의 결과발표를 지켜보던 강의구 회장은 "이번 해외 탐방이 예술가로 살아갈 청년작가들에게 소중한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지역의 청년작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 것을 약속하며 박수를 받았다.

공연장에서의 결과보고회가 끝난 뒤에는 4층 전시장으로 이동해 서채하 손유하 작가(부산미술협회)의 미술 작품과 장학민 시인의 시화 전시를 다 함께 관람했다. 해외 탐방의 어떤 장소에서 어떤 영감을 받아 탄생한 작품인지를 작가들이 직접 설명할 때마다 탄성과 공감의 꼬덕임이 있었다. 부산예술후원회 강의구 회장, 박근서 감사, 조한제 정책위원장과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 해외 탐방에 함께한 부산음악협회 권성은 회장과 부산일보 김은영 선임기자 등이 청년작가들과 마지막 단체사진을 찍으며 '2023 부산청년작가 해외탐방'의 일정은 전부 마무리됐다.

/ 편집실







하늘의 시선:
드론으로 찾아낸 숨은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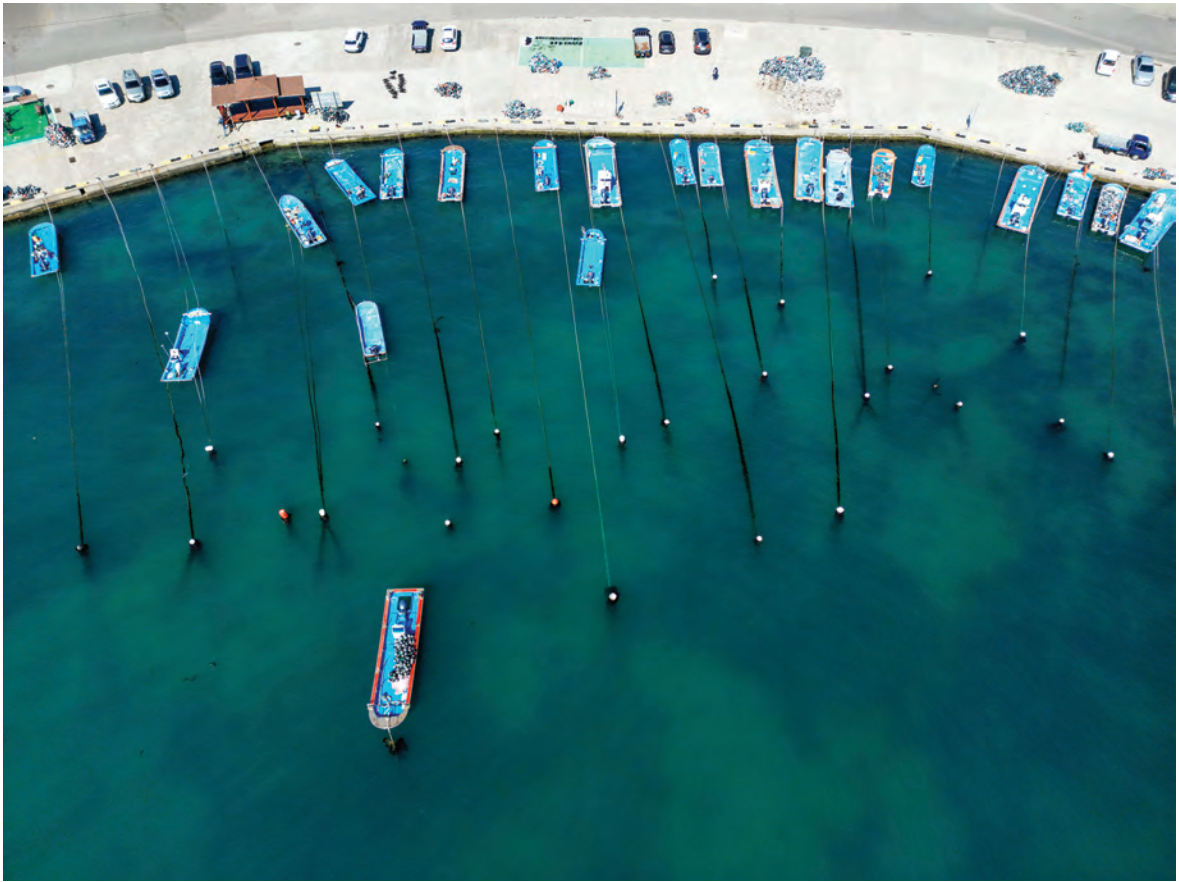


사진 속에서 색다른 시선을 보여주고 싶어 높은 곳에도
올라가 보고 땅에 드러누워도 봤습니다.
여름이면 나뭇잎에 가려져 마음에 드는 화각이 나오기 어렵고,
겨울이면 지형적 한계로 인해 촬영을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새처럼 날면서 촬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이런 바람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드론을 통해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이 물리적으로 닿지 못하는 곳에서 찍은 세상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패턴,
또는 평범하게 느껴졌던 숲이나 강에서 드러나는 자연의 아름다운 질서는
더욱 독특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드론의 매력, 한동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글 사진_조순덕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

부산, 에세이로 피다
소금밭이 있던 자리

소금밭의 자리다. 부산의 가장 큰 염전이 수백 년 이상 버티고 있었던 곳, 한때 조선의 소금을 구워냈던 모래펄, 바닷물을 담은 넓은 그릇 모양의 염전 갯벌이니 분개라 불렀던 땅이다. 분개는 용호동의 옛 이름으로 '염전이 있는 갯벌'이라는 뜻이다. '분'이 화분 분을 뜻하니 소금을 굽는 가마라는 뜻이겠고 '개'는 갯가, 개펄, 갯바위, 갯낚시에서 알 수 있듯이 포구의 순우리말이므로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 분포(盆浦)가 되겠다.

조선시대의 해동여지도나 영남읍지 등 고지도에도 보면 분명히 분개라고 적혀 있다. 사백여 년 전 인근 석포마을 염전을 개발한 것이 첫출발이었다고 한다. 용호만 근처에는 갯벌이 둥글게 펼쳐져 있어 염전을 조성하기 쉬웠다. 지금의 부경대학교 앞바다에 네 군데 염전이 있었다고 하여 이 마을을 사분개 혹은 사분포마을이라고 불렀다. 분개염전은 용호마을 입구로부터 바닷가 쪽으로 넓게 뻗어있었다. 대한제국 당시만 해도 이만 평 소금밭에 서른 개가 넘는 소금가마가 있었으며 소금세를 걷어갔다는 자료도 남아 있다.

분개소금이 맛있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염전마을 아낙들은 소금 광주리를 이고 부산장과 동래장, 구포장이나 하단장이나 영도까지 소금을 팔러 다녔고, 장정들은 하루 값이 쌀 한 되만 정도인 일급제 염전 일을 하였으며 판매가 부진할 때는 소금을 품삯 대신 받아 각자 팔아 생활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온다.

그 소금밭을 상상하려면 썩자리 포구 주변을 어슬렁거리야 한다. 썩자리는 '썩'과 '자리'의 합성어로 '물고기가 많이 모일 수 있는 잘피라는 해초와 물 등이 풀썩처럼 균락을 이룬 자리'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물속에 쌓아두는 나무나 대나무 또는 갈대 등을 지칭하는 말이 썩이다. 썩이 있는 곳에는 수생식물인 잘피가 많아서 장사꾼들이 이곳 잘피를 채취하여 채소 단처럼 묶어 판매했다고도 한다.

잘피나물의 맛은 어떤 맛일까. 지금처럼 바다도 오염되지 않았고 소금 맛도 좋았으니 잘피로 국을 끓이든 부침개를 하든 싱싱한 해초에 분개소금이 들어갔다면 모두 미각을 돋우는 음식이 될 것이다. 그때의 잘피나물 맛은 지금 찾을 수 없지만 아쉽다면 썩자리 항구 앞에 즐비하게 늘어선 어촌계 노포 식당에 들러야 한다. 각자의 배 이름이나 해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호를 단 활어 판매장이 성업 중이다. 모듬회와 가리비구이와 장어구이와 문어 전복이 메뉴판에 올랐고 낚술이나 혼술도 가능한 곳. 운이 좋으면 자연산 돌멩계와 성게도 맛볼 수 있다.

썩자리는 어수선한 낮 풍경도 괜찮지만 하루해가 떨어질 무렵부터 시작되는 밤의 풍경이 훨씬 매력적이다. 근처의 카페든 음식점이든 그냥 갯바람 넘나드는 공터에서든 보름달 뜨는 포구를 꼭 보아야 한다. 하늘에 하나, 바다에 하나. 두 개의 달이 뜨고 두 개의 달이 지는 곳이다. 그리고 바다에 빠진 달을 건져 올리는 썩자리 포구, 낙조와 함께 빈 배들의 어깨 부딪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저기에 오래전 소금마을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말소리와 짝조름한 염전 바람 냄새까지 더해진다면 이것에서는 독작(獨酌)도 풍경이 될 수 있다.

내친김에 분포를 내려다보는 야트막한 야산인 동생말 쪽으로 가 보자. 지명이 특이하지만, 해가 뜨는 동쪽 끝자락이라고 해서 동생말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제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동생말에서 올려 보면 포구 너머 광안대교가 바다를 가로지르고, 반대편 아파트 군락지의 위상이 하늘을 찌른다. 옛 풍경은 모두 사라졌지만, 백운포 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다행히 나지막한 집들이 남아 있어서 옛 염부들의 터전을 떠올릴 수 있다.

조선 전통의 진짜 소금은 자염(煮鹽)이었다. 갯벌 염전에 썬레질을 반복하여 개흙을 만들고 바닷물을 부어 여과시켜 펄펄 끓이면 물은 증발하고 소금만 남는다. 분개 소금도 처음에는 그랬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 염전은 천일염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침전시설에 잔물을 끌어 올려 햇볕에 증발시키면 배추나 무를 절일 때 사용하는 굵은 결정체의 눈꽃 같은 소금이 된다. 분개 소금도 일본인들에 의해 천일염 생산을 하였다가 다시 전오염(煎熬)으로 개발됐다. 이는 염밭에서 강한 햇볕으로 건조시킨 검은 모래에다 소금물을 잔뜩 먹게 한 후 그 간수를 주물솥에서 끓여 증발시킨 소금이다. 그러니 전오염 소금 맛을 본 세대라야 인생의 잔맛을 제대로 알고 있거나 앓을까.

나는 십수 년 전부터 한번도 소금을 사지 않았다. 당시 두 번째 수필집을 내고 운 좋게도 문학상을 하나 받게 되었다. 그때 신안이 고향인 문우 한 분이 어머니가 농사지었다던 천일염 한 포대를 선물로 부쳐왔다. 나는 깜짝 놀랐다. 두 식구가 평생 먹어도 남은 양에 놀랐고 난생처음 소금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이 특별했다. 소금은 진짜 맛있는 천일염이었다. 소금 맛이 쓰지 않고 달다는 표현을 해도 절대 과장이 아니다. 내 숨씨 없는 음식 맛도 이 소금만 넣으면 딱딱 간도 맞고, 생선을 구울 때도 뱃살에 칼집을 내어 이 왕소금을 툭툭 몇 가닥 뿌리면 짭조름하고 고소한 구이가 된다.

그리고 보니 소금 맛을 좋아하는 자들이 음식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예로부터 전해오던 김치와 젓갈과 장아찌류 등의 염장 식품은 제외하고라도 요즈음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카페에 가 보시라. 소금커피와 소금빵이 대세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아직도 감히 커피에 소금을 넣어? 라고 한다면 당신은 끈대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한입 소금커피 맛을 본다면 커피와 소금이 찰떡궁합이라는 사실을 재빠르게 수궁하게 될 터이다. 소금빵 역시 빵의 표면에 소금을 뿌려, 버터의 고소한 풍미를 짹짹한 소금으로 더욱 강조하였다. 아마 동남아 여행 중 수박이나 멜론을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을 경험했다면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일이다.

그러나 음식도 유행을 타듯 영원한 것은 없다. 염전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소금이 온다”고 외치던 염부들의 목소리도 잦아들기 시작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딱 들어맞았다. 해방 후에는 인부 구하기도 어렵게 되고 사라호 태풍까지 와서 소금밭이 쓸리게 되었다. 아울러 매축이 되면서 넘실대던 바닷물과 반짝이던 소금밭을 밀어내고 거대한 철강회사가 들어서고 하수 처리장이 건립되었다. 콘크리트로 뒤덮여 구획정리가 되면서 노동자들이 기거할 매립 주택이 지어졌으며 학교



와 아파트가 생겨나고 먼지 나던 황톳길 대신 반듯한 신작로가 만들어졌다. 이곳 쉼자리 끝 쪽
 염전 자리에도 최근 별빛공원이 만들어져 소금꽃 대신 밤마다 별빛이 반짝인다. 지나간 것은 모
 두 그렇다. 이문재 시인의 시처럼.

염전이 있던 곳/ 나는 마흔 살/ 늦가을 평상에 앉아/ 바다로 가는 길의 끝이다/ 지그시 힘을 준다/
 시린 바람이/ 옛날 노래가 적힌 악보를 넘기고 있다/ 바다로 가는 길 따라가던 갈대 마른 꽃들/ 역광
 을 받아 한 번 더 피어 있다/ 눈부시다/ 소금창고가 있던 곳/ 오후 세 시의 햇빛이 갯벌 위에/ 수은차
 럽 굴러다닌다/ 북북서진하는 기러기 떼를 세어보는데/ 젖은 눈에서 눈물 떨어진다/ 염전이 있던 곳/
 나는 마흔 살/ 옛날은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오는 것이었다

- 이문재의 '소금창고' 전문

그러니 종종 사라져간 소금밭도 기억할 일이다. 민가도 없는 바닷가 갯벌에 소금을 굽는 동이
 만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풍경을 한번 상상해보라. 이스라엘의 사해 소금호수와 미국의 그
 레이트 솔트레이크와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사막 등이 아직도 여행지로서 인기가 있고, 우리나
 라에도 보령 소금광산과 신안 소금밭과 곰소염전 등이 유명하지만, 부산의 분개 소금마을이 남
 아 있다면 사진으로 글로 여행지로 유적지로 경이로운 장소가 될 수 있을 터.

글·사진 김정화수필가



제16회 부산젊은예술가상 수상

건축가

조정훈

- 부산다운 건축상 일반 부문 은상 수상
- 제11회 부산건축상 신인건축상 수상
- 부산건축가회 운영위원회 이사,
젊은건축가위원회 위원장
- 현) 부산건축가회 부회장,
건축사사무소 아익 대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른 건축^{建築}의 정의는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이나 나무, 돌,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이다. 조정훈 건축가는 어렸을 때 무언가 손으로 만들어 내는 걸 좋아했다. 머릿속으로 표현하고 싶은 공간을 상상했다. 그 공간을 실제로 구현했을 때 성취감이 차올랐다. 건축은 도전 의식을 불태웠다. 끝없이 벽에 부딪혀도 도전을 멈추지 않게 하는 묘한 끌림을 가지고 있었다. 건축의 가치를 실현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다는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공간을 다루는 건축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간적인 장면을 물었다. 비어있는 '공간'에서 인간의 숨결이 느껴지는 '장소'로 바뀌었던 그 장면은 그의 학부 시절, 답사 때의 풍경이었다. 새벽이 지나 동이 틀 때, 자연의 풍경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사근사근 흔들리는 그 이미

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건축으로 표출, 공간적 느낌을 주고 싶었다. 건축과 대지와의 접점을 건축설계로 표현하고자 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출연한 다큐멘터리 <안도 다다오, 다음 세대를 위하여>에서 안도는 자신의 건축에는 남들이 봤을 땐 쓸데없어 보이는 공간을 마련해준다고 했다. 그 공간은 예상치 못한 목적의 공간으로 탈바꿈되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한다. 조 건축가도 비슷하게 말했다. 건축설계의 출발점은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다. 작가의 의도대로 움직임을 설계하는 건 불가능하다. 저마다의 삶이 다르듯 건물을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서로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이다.

건축설계의 근본은 주택이다. 인간이 가진 모든 삶의 형태



영도구 가족센터

가다 들어 있다. 집의 가장 작은 단위는 자신의 방이다. 방에서 확장되어 주택이 되고 주택의 확장은 호텔이 된다. 병원 또한 주택의 일부 기능을 가져온다. 가족들과 함께 또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살려고 의뢰하는 주택은 자신의 집을 갖기 위해 꿈을 꿔던 로망을 실현하는 단계에서 건축주와 건축가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하고 싶은 요소를 자꾸 담다 보면 좋은 공간이 되기는 힘들다. 이때 건축가의 역할은 건축의 가치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건축주를 안내하는 것이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이 온전히 담겨있는 공간인 주택보다 투자 성격이 강한 건물을 만드는데 주력할 수도 있지만 그가 운영하는 건축사 사무소 이익은 어떤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주택, 주상복합, 병원 등)을 설계하려고 노력한다. 건축에 도전 의식을 불태우던 그의 열정이 느껴졌다.

사람마다 관점과 기준에 따라 성공을 측정하는 척도가 달라진다. 건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문득, 조 건축가의 미래를 상상해 보고 싶었다. 성공한 건축가가 되고 싶냐는 질문에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설계한 건축물을 만들고 있다는 취지에서는 저는 성공한 삶이죠.”

물론 본인 마음에 쏙 드는 건물은 없다고 했다. 늘 아쉬움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예술의 한 갈래로 건축을 본다면, 위대한 건축물은 예술적 경지에 오를 만큼 감동적이다.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물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전율이 왔다. 그 당시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저런 건물을 만들 수 있을까 싶었다. 건축 자체가 예술품이고 조각품이라며 그저 감탄만 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대중에게 비치고 싶은 본인만의 건축가 이미지가 조 건축가에게 있을까? 그는 그런 욕심은 없다고 말했다. 그저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인정받아 상을 받고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의미 있다고.

건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삶 대부분의 시간이 건축에 녹아 들어있다. 오스트리아의 건축가 아돌프 로스는 “건축은 인간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건축가의 임무는 그러한 감정들을 더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건축이 많다고 말하는 조 건축가의 반짝이는 눈동자에서 인간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건축을 만들고 있을 그의 듩직한 모습이 보였다.

클 이지윤



제22회 부산예술대상 수상

무용가 **윤여숙**

- 현) 부산시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고무 전수교육조교,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윤여숙 무용단 대표,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
- 부산무용협회 제18대 회장, 부산예술대학 무용과 교수 외 역임
- 부산젊은예술가상(2012, 부산예총), 봉생문화상 공연부문(2016, 봉생문화재단) 수상 외 다수

“몸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게 너무 좋았어요.”

벌써 수십 년째 무용을 해오고 있지만, 춤에 관해 말하는 그의 눈동자는 어린 날의 그 언젠가처럼 반짝였다. 부산무용협회 회장을 지낸 만큼 부산 무용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는 그이지만, 아름다운 춤에 연심을 품은 한 명의 무용수이기도 한 덕이다. [윤여숙 무용단]의 대표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를 만났다.

외할아버지인 김동민(1910~1999) 선생과 어머니인 김은경(부산시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고무 예능보유자) 선생, 윤여숙 대표 본인과 그의 딸까지, 4대에 걸친 춤꾼 집안이다. 그런데 의외로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춤을 배우진 않았다고 한다. 김은경 선생이 부산에서 무용학원을 시작한 게 그의 나이 10살 무렵, 그때 처음으로 춤을 배웠다. 육성으로 하는 말보다 더 깊은 말을 하게 하는 몸짓 언어에 재미를 느끼던 즈음 무용학원에서 외국 손님들을 초대해 작은 공연을 열었다. 한삼이 너울거렸고, 부채와 한복이 호를 그렸으며, 현란한 김무가 펼쳐졌다. 코앞에서 공연을 보던 그가 춤에 반한 순간이었다. 대학 진학을 결정할 시기가 왔을 때 하고픈 대로 하라는 어머니의 권유에도 스스로 무용 전공을 선택한 것은 그 강렬한 기억을 못 잊어서다.

서울의 무용단에서나, 한영숙 선생이나 김진걸 선생 등 뛰어난 무용가에게서 다양한 춤을 배우고 부산에서 또 다른 춤을 배웠다. 그는 부산 춤에는 확실히 지역성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무뚝뚝하고 담백한데 그 속에 진한 진심이 있다. 대놓고 좋다고 말하지 않는 절제가 춤에 담겨 처음 볼 때는 썩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다. 무뚝뚝함에 가려진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면모를 알아채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듯 그러한 춤을 추는 데에도 진득하게 파고들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기 힘든 것이 예술인들이 당면한 현실이라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윤여숙 무용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되며 2022년 타임슬립무용극 <인연, 시간 속으로...>, 2023년 총체무용극 <금정산 고당할미> 등 신선한 기획과 현대적 감성이 어우러진 무용극을 선보였다. 올해 11월에는 국립부산국악원 송유당에서 선보일 <도깨비 교방>을 위해 연습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기도 하다. 대중문화에서 소비되는 '타임슬립'이라는 소재를 차용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준비한 춤을 순서대로 추는 여타 무용 공연의 정적인 면을 벗어난 공연 형태지만, 뿌리는 전통춤에 단단히 박혀 있다. '반짝'하고 말 게 아니라면 한국적인 춤의 호흡에 기초를 두고 창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윤여숙 무용단]의 무용극들은 '동래교방 재건 프로젝트'라는 큰 목표 아래 창작되고 있다.

전통춤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무용극을 윤대표는 동래부사의 기로연을 상정해 만든 <신新 향연례>(2015년)에서 처음 시도하며 동래고무, 동래입춤, 강태홍류 산조춤 등을 공연했다. 그때부터 즉 전통춤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최근 <금정산 고당할미> 공연에서 관객들이 무대와의 소통에 기꺼이 응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그래서 아쉬움이 더 크다. 완숙한 열매를 맺기 전에 받고 있는

지원이 끊어지면 이후에는 더 큰 노력과 투자, 그리고 희생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이다. 예술은 앞서 말했듯 시간을 들여 진득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윤 대표는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예술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특히 부산만이 가진 부산춤의 에센스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창작'의 개념을 제대로 설정해서 지원해야 한다. 전통춤에 기반한 창작을 완전한 창작으로 보지 않는 현행대로라면 뿌리가 없는 부평초 같은 몸짓만이 창작무용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부산 무용계가 처한 현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많은 무용인이 꾸준히 실력을 가다듬고 다양한 시도를 해나가고 있고, 이에 우산이 되어주는 건 역시 김진홍, 김은경 선생과 같은 원로 무용인이다. 윤 대표 역시 제각기 다른 결을 가진 무용수가 모인 무용단을 이끌면서 재정적인 문제까지 고민해야 하기에 무척 힘들지만 원로 선생님들의 존재만으로도 힘을 얻는다고 말한다. "전통예술을 그동안 계승해 온 분들의 정신까지 같이 계승해서, 미래의 주인들에게 오롯이 물려주는 튼튼한 교두보가 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무용계의 발전을 염원하고 염려하는 깊은 마음에서 발로하는 것이리라. 물려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 물려주는 것은 개인의 책임감 이전에, 어쩌면 후대에 대한 의무인 탓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예술인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선대와 후대의 연결점이 되어주는 부산예총에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에게 춤은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보람, 행복, 긴장, 모든 걸 느끼게 하는 삶의 일부이자 곧 생활이다. 춤에 관한 두터운 마음과 고민, 열정이 그의 바람처럼 튼튼한 교두보를 형성하리라고 믿는다.

글_이효민



유년의 정서,
그 이상향을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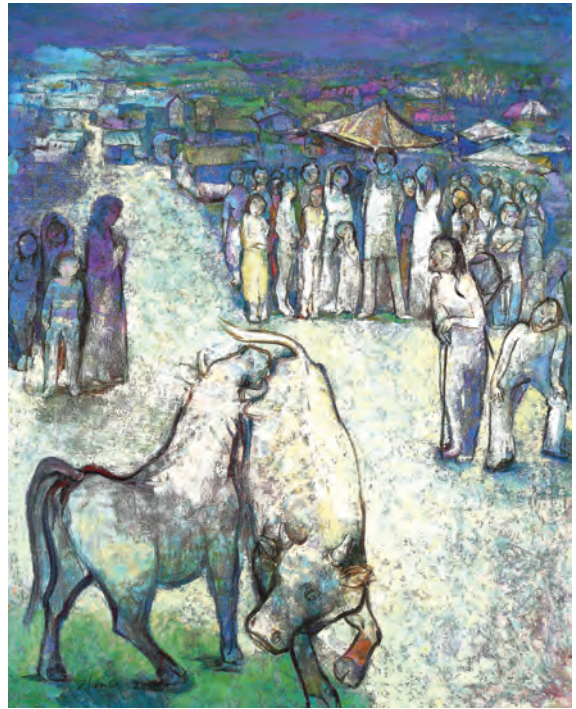
화가
이강윤

· 개인전 8회, 단체전 및 초대전 다수
· 제14회 송해수 미술상,
제2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부산지회 작가상 수상
· 부산미술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열매회, 수영구미술회

어느 해나 사람들은 말한다. 올가을은 유난히 짧은 것 같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야 몸과 마음이 선선해졌다. 필자에게 가을이 내려온다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해보고 싶었다. 바로 '자연'을 닮은 행복한 사람, 이강윤(李康潤) 작가를 만나는 것이다. 아늑하고 멋진 작업실에는 작가만의 작품세계가 가득하고 조각 도구와 종이, 캔버스, 붓 등 팔레트에서 풍기는 물감 냄새가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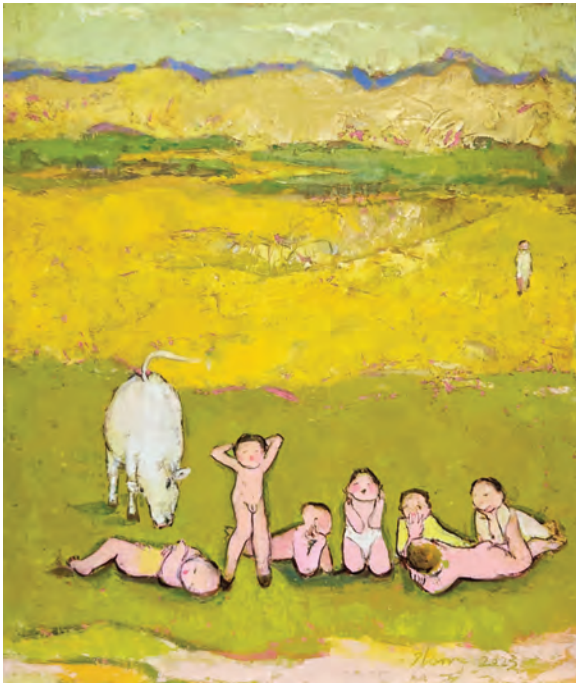
이강윤 작가는 1942년 부산 동래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유복한 집안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외할아버지께서 그림을 그리셨으며, 작품과 책들이 있는 예술적 환경이 작가의 내면에 뿌리내렸다. 한의사를 하신 할아버지께서는 똑똑한 손자가 병원을 이어받았으면 했다. 작가는 환자들의 우울한 모습도 안타까웠고, 공부 잘하면 의사 시킬까 봐 책을 멀리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 밤하늘에는 달과 별들이 가득했고 농장에는 소, 말, 당나귀, 개, 닭, 오리 등 동물들이 많아 자연스레 친구처럼 놀았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어 숲을 가지고 농장의 흰 벽을 돌면서 그림 아닌 그림을 즐겼다. '우리 강윤이는 참 그림을 잘 그리네' 그 소리만 믿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겁 없이 그림에 매달렸다.

집안의 변화로 청소년기에 나를 둘러싼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오랜 세월 동안 힘든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살아가면서 가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길렀다. 작가는 부산을 대표하는 서양화가 송혜수(宋惠秀)(1913-2005) 화백의 수제자로 들어가면서 사춘기의 반항심을 그림으로 달래며 세상을 배웠다. 송혜수 화백은 실향민으로 부산에 정착한 이후 '송혜수 미술연구소'를 차려 후진 양성에 힘썼다. 제자들에게 대한 애정이 깊어 훗날 화가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을 깊이 있게 심어 주었으며 '사람이 먼저 되고, 그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강윤 작가는 지금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림은 물론 최고의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을 무척 그리워하고 있다.



작가는 '자연'을 주제로 한 절제된 미학을 보여주는 작품을 많이 그렸다. 주제에 있어서 순수한 어린 시절에 체험한 주변의 자연 정경과 동물들과의 풍부한 서정을 일관성 있게 추구했다. 가족 풍경들이 많이 등장하고 동물들과 벗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유년의 순수함이 묻어있는 '흰 소'가 많이 등장한다. 자신만의 추억과 기억을 투영해 전혀 다른 새로운 풍경을 그려낸다. 어딘가 존재할 것 같지만 존재하지 않는 듯한 그의 풍경화는 구상과 추상 사이를 오간다.

작품을 보면, 「아동기 시절」(2018)은 '소' 등 위에서 아이가 낮잠을 자는 모습과 어린 송아지가 먹어야 할 젖을 철없이 먹었던 순수한 시절의 기억 그림이다. 「가족」(2018) 이 작품은 제목처럼 가족들이 서 있고 그 뒤를 강아지와 소가 따르고 있다. 분홍색 꽃이 피어있는 나무 그리고 새가 앉아 다정스런 가족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모습을 일관성 있게 추구했다. 주변에 실재하



위 아동기 시절_Oil on canvas, 10호F
아래 포옹_Oil on canvas, 10호F

는 대상과, 자연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나며 「형제」(2016) 「목장」(2018) 「궁도장」(2000) 작품들은 그의 삶 자체임을 깨닫게 한다. 「귀가」(2000) 「장터로 가는 길」(1989)은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이다.

그는 사람과 자연의 존재론적 동등성과 조화로운 삶의 모습을 지향했다. 친근한 소재들을 대담하게 단순화해 화면에 자유롭게 배치하는 화풍으로 작품을 그렸다. 몽환적인 구도 속에 최소한의 윤곽선만을 사용하고 있다. 온화하고 친진한 인물과 동물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며 표정은 부드럽고 가식이 없어 보인다. 어찌 보면 현실 세계가 아닌 것처럼 더없이 평온하고 한 가족처럼 주변의 인물들과 어울려 있다. 어찌면 그가 꿈꾸고 희망하는 이상향일지도 모른다. 청색조의 푸른 화면과 부드러운 노란빛, 소와 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단순한 선묘에 의해 묘사해 농음으로써 시詩적인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그림을 그리는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는 항상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 생각이란 것이 그림의 발상發想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보고 싶은 대로 그냥 보고 있는 것'과 '지식을 가지고 관찰해서 보는 것'은 크게 다르다. 작품에 가득한 '소'는 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고 '가족은 온 세상을 품는 우주였다. 가족도 동물도 모두 소중한 인연因緣'으로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던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그림은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툭툭 튀어나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한 거울이나 맑은 바다처럼 순수하게 비어 있어야 한다. 대상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 하나하나 지워 나가면 조그마한 마음만 남는다. 이런 비워진 마음에는 모든 사물이 순수하게 비치며 그런 마음이 되어야 붓을 든다. 작업실에 앉아 계속해서 연구도 하고 그려도 보면 그림에서 '새로운 씨앗'이 보인다. 시선과

사고를 결합해 바라보는 것만이 진정한 경험인 것이다. 성장은 소유와 비소유를 분별하며 자신과 가까워지는 과정이다. 폴 세잔(Paul Cézanne, 1839-1906, 프랑스)은 '자연에 따라 그린다는 것은 결코 대상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각을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누구보다 자유로운 발상과 방법으로 화가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그림처럼 정확한 나의 분신(分身)은 없다며 자신을 다 드러냈다. 마음에 있는 추억과 감정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 보면 생각 외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때는 '엄버(Umber, 감색顔料)'색으로 캔버스를 다시 메운다. 불을 끄고 조용히 어둠 속에서 바라보면 그림자 속에서 그림이 다시 보인다고 한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 저항(抵抗)이야말로 자기의 존재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 점의 그림에서 점 하나, 선 하나도 열 번 스무 번을 생각하며 엄격하고 치열한 고민 끝에 완성하는 이강운 작가다. 이제는 그의 작품을 그냥 스쳐 가며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천천히 스토리를 찾으며 감상하기를 원한다.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면서 요리가 취미인데 한식 자격증도 가지고 있으며 음식 만드는 일이 즐겁다며 환하게 웃는다. 내년 가을쯤에 있을 '회고전'을 위해 준비 중인 새로운 그림들이 작업실에 가득한데, 작업실 한쪽 벽면에는 작가가 좋아하는 칼과 활, 평생 공부해야 할 책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다. 틈틈이 직접 제작한 칼과 칼집을 보여주는데 작가의 내공이 선명한 수작(秀作)들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게 언제든, 갈고 매만진 칼과 한땀 한땀 수 놓은 가죽 칼집 작품들을 방 하나를 가득 채운 미술관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게 된다. 작가는 가끔씩 국궁과 검도도 즐기는데,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한다.



여가_Oil on canvas, 100호

끝으로, 작가로 산다는 것은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그림을 위해 산다는 것'이라 말한다. 한평생 끈기 있게 고민하고 자신을 몰입했기에, 젊은 시절 꿈꾸었던 화가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온 매우 행복한 '이강운 작가'다. 지금은 그의 제자들이 화가로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이 또한 행복하다고 한다.

이제는, 온몸에 흙을 잔뜩 묻히고 코를 흘쩍이던 그때 그 꼬마는 없다. 다만, 점과 선을 벗 삼은 머리 희끗한 어른이 있을 뿐이다. 다시 하얀 캔버스를 마주하며 눈을 감고 그림움과 자연을 떠올려 본다. '자연'은 표현하기가 어렵구나.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디선가 바람 소리가 들린다. 그는 상쾌한 붓질로 시작하여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까지 달려가 본다.

다시 그림을 그린다.

점 하나! 선 하나! 여기까지 하자.

글. 진수아 부산미술 편집위원

동거

이 문선

산은 온종일 바라보다가 눈이 벌고

바다는 온종일 펼쳐 놓아 귀가 벌었다

해는 온종일 걸어 다니다 다리가 아프고

달은 모든 것을 안고 동거 중이다

작가노트 | 어머니 품속 같은 우주를 안고 휴식에 들어가는
달의 재생적 삶을 간결하게 표현해 보았다.

글_이순선 부산문인협회 총무이사, (전)수영구문화예술회 문인회장

RE: VIEW

- 미술**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장한나 '뉴 락New Rock' _ 이지원
- 영화**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박홍준 감독 <해야 할 일> _ 김민우
- 음악** 부산음악의 정체성
 '오충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_ 이혜영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장한나 '뉴 락 *New Rock*'

클_이지원 큐레이터(제이무브먼트)

올해 5월 4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큐빅하우스에서는 장한나 작가의 '뉴 락 *New Rock*' 전시가 진행 중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마치 어떤 자연사박물관에 들어선 것처럼, 크고 작은 돌들이 여러 형태로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새로움^{New}이란 무엇일까? 장한나의 작업을 목도하며 가장 처음 머리 속에 떠오르는 질문이다. 작가는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자연 속에서 풍화되고 녹으며 자연물과 결합하는 등, 마치 돌과 같은 형상^{Plastiglomerate}이 된 것을 가리켜 '뉴 락'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만들어 낸 새로운 암석이다.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이 지칭은 다분히 아이러니하다. 새로운 이란, 기존과는 다른 시작을 일컫는 표현인데, 작가가 말하는 '새로운 암석'들은 마치 어떤 마지막이나 상실을 뜻하는 듯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모순된 감각은 전시장에 나열된 장한나의 작업 전반에서 계속 드러난다. 그가 수집한 플라스틱 돌들은 마치 지구의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해 왔던 것처럼 자연이 품은 송고와 경이가 그대로 투영되는데, 그 외양에서 인공물과 자연물 사이의 경계는 미묘하게 비틀린다. 더 나아가, 작가는 페스티로폼 속에서 집을 짓고 사는 개미들처럼 폐기물과 어우러져서 살게 된 생명의 흔적들을 보며, 자연이 플라스틱 쓰레기조차 받아들이고 품었다고 말한다. 벽면 곳곳에 적힌 그

의 텍스트는 자연을 '무한히 너그러운' 대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연을 우리의 빈약한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위치시킨다. 따라서 장한나가 말하는 이러한 포용자로서의 자연은, 대중매체가 많이 노출하고 있는 방식처럼 인간의 환경 파괴에 의해 '다치고, 병들며, 무너지는' 객체의 위치에 있지 않다.

여기서 작가는 함부로 반성이나 교훈을 들이밀지 않고, 판단을 유보한다. 문제를 단순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시선을 회피하지도 않는다. 단지 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한 생태계 변화의 결과물들을 관객의 눈 앞으로 가져온 채, 우리가 이런 변화들—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물을 뿐이다. 마치 '뉴 락'들을 통해, 우리가 매일 맛닥뜨리는 현실이 여러 모순이 뒤엉켜 중층결정된 이미지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듯 보인다. 해변에서 발견하는 플라스틱 돌들은 인간/자연과 같은 이분법적 사유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생태와 문명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단편이 된다.

지난 20세기부터 인류가 문화라 부를 수 있었던 모든 이기^기들은 플라스틱 체제^{System} 하에서 이룩되었다. 플라스틱은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동물들을 죽이거나 숲과 대지를 훼손해 왔던 인간이 실험실 안에서 분자를 합성해서 만들어 내게 된 소재로, 당시 기준으로 친환경-생태적인 물질



신생태계_180×60×60, 2023

이었고 문명을 진일보시키는데 기여했으며, 많은 이들이 플라스틱에 의해 구원받았다.¹⁾ 대량소비와 자본주의 아래에서, 우리는 플라스틱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플라스틱은 현대문명 그 자체이며 우리의 삶이 이미 그 합성 물질 속에 포화되어 있는 까닭이다. 찬란한 진보는 역설적으로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형태로 위협이 되어 되돌아오고,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이빨대 쓰기'와 같이 눈앞에 보이는 심리적 위안 찾기만 급급할 뿐, 그 거대한 구조^{Hyperobjects}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매일은 사소한 원인과 결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열에 의한 뉴락_200×200, 가변설치, 2023

'뉴 락'에서의 '새로움'이란 돌을 구성하는 재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것(상태)을 바라보는 새로운 사고와 시각에 대해 말하는 전반적인 은유로 읽는다면 너무 확대해석일까. 우리의 시각과 지식은 턱없이 부족하고 빈약하며, 유한하지만, 동시에 유연하다. 지금 당장 답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나 거대 서사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고 그 복잡한 관계를 조망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장한나 작가가 진열해 둔 아름다운 돌들은 분명 새롭고 가치있다.

1) 최정화 작가의 플라스틱 작업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량생산된 플라스틱 공산품이 한국의 현대사에서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영화 <해야 할 일>

글_김민우 영화평론가

준희(장성범)는 부산의 조선소에 일하는 4년 차 대리로서, 추천을 받아 인사팀으로 발령이 난다. 새로운 부서에 적응을 채 하기도 전에 회사는 '어려운 사정'을 들어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고 그는 구조조정 대상자 리스트 만드는 과정을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협잡, 실려달라는 아우성을 듣게 되는 준희. 불의에 나름대로 저항하던 학생이었던 그는 생계를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두고 죄책감에 괴로워한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맞아 『예술부산』에 소개하고픈 영화가 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부산 출신이자 부산에서 영화 활동을 시작한 박홍준 감독의 <해야 할 일>이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섹션에 출품되었기 때문이다. 비전 섹션은 한국독립영화의 최신작을 볼 수 있는 부문으로 주로 신인들의 작품들을 선보이기 때문에, 한국독립영화의 최전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현장이다. <해야 할 일> 역시 박홍준 감독의 첫 번째 장편영화다.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인사팀 직원이었던 그는, 우연히 방문한 영화의전당에서 시나리오 쓰는 수업을 듣게 되면서 영화와 인연을 시작했다. 그 이후 회사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영화를 찍게 되었다는 그의 이력은 확실히 독특한 구석이 있다. <해야 할 일>의 기반도 이러한 이력에 기인한다. 감독 자신이 인사팀 직원으로서 겪었던 구조조정의 경험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했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이 가진 장점도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디테일이다. 영화는 구조조정 국면에서 벌어지는 사내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그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임에도 엑셀 프로그램의 한 시트로 정렬된다거나 준희를 사위 삼고 싶어 할 정도로 마음을 나누었던 장일섭 부장(강준상)을 준희 스스로 구조조정 대상자로 지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조명한다. 영화는 주요 갈등인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인사팀 주변 인물을 통해 드러나는 디테일 역시 놓치지 않는다. 이를테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언제나 가장 먼저 해고되는 것은 저학력 여성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을 지목하는 것처럼 말이다. 누군가는 준희의 말처럼 근무 평가가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화는 손경연 대리(장리우)를 통해 회사가 사실 그녀들에게 제대로 된 일을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평가 자체가 부당했음은 후반부에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차장들을 통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어버리는데 제대로 된 평가가 될 리 만무하다. 영화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 회사라는 존재가 기저에는 차별과 불평등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다른 측면에서 영화를 본다면, <해야 할 일>은 차분한 소동극일지도 모른다. 카메라는 감정적 폭발을 자제하고 차분히 사건을 들여다보지만 이 모든 일은 윗사람들에 의해 일

종의 신기루처럼 나타났다 사라져 버린다.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소동처럼 말이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갈등하며, 투쟁을 하고 있는 삶의 현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별 고민 없이 사태를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다. 사실 이 영화의 가장 큰 적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회장님'이다. 회장님을 살리기 위해 직원들은 잘려야 하고, 회장님을 살리기 위해 직원들은 회사에 다닐 수 있게 된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등장시키지 않은 채, 목표를 달성한다. 그리고 이 난장판에서 싸우는 인물은 함께 일했던 동료 노동자들뿐이다. 회사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이라는 끔찍한 의무를 부여하여 딜레마에 빠지게 해놓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는 권력을 지닌다. 그렇기에 우리가 분노해야 할 방향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영화는 넌지시 말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해야 할 일>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준희라는 인물에게서 감지할 수 있는 흔들림이다. 그는 냉정하

고 합리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듯 보이지만 이내 무너진다. '해야 할 일'이라는 의무감으로 버티기엔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것이다. 준희의 아내 재이(이노아)의 말마따나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그 부끄러움을 표현하지 못해 혼자 삼킬지 언정 스스로 수치스러워할 줄 아는 태도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걸 <해야 할 일>은 담담하게 읊조린다. (다소 조침스럽지만) 그것은 감독 개인과 겹쳐 보이기도 한다. 마치 당시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바꿀 수 없는 막막함 앞에 선 소시민을 박홍준은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일종의 고백이기도 하며 심지어 사죄의 의식으로까지 느껴진다. 그 담담한 고백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 물음에 <해야 할 일>은 다시 답한다. 그저 눈앞에 벌어진 불의에 부끄러워하며 불편하게 있을 수만 있다면. 언젠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모여 세상에 저항할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영화는 꿈꾸고 있다.



부산음악의 정체성

‘오충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글_이혜영 음악칼럼니스트

지난 9월 26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OS)]가 창단 30주년을 기념하는 제54회 정기연주회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하였다. 민간오케스트라가 지역에서 30년이나 존재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큼 무척 어려운 일이다. 오죽하면 창단이 곧 소멸이라는 말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30년간 부산을 대표하여 한국에서 손꼽는 민간오케스트라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여다보았다.



1993년 소규모의 부산제임버오케스트라로 창단해 2000년 오케스트라로 공식 출범한 이후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창단 3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으로 탄생 150주년을 맞은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선택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다. 1부에서는 작곡가 하순봉이 편곡한 「라흐마니노프 주제에 의한 교향적 엘레지」Symphonic Elegy from theme of Rakhmaninov Symphony No. 2 in e minor, Op. 27 I. Largo-Allegro moderato II. Allegro molto III. Adagio IV. Allegro vivace」를 들려주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트리오 1번 G단조 ‘엘레지」」를 오케스트라용으로 편곡한 것이다.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30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찾은 연주회에서 오히려 ‘위로’를 선물 받았다. 라흐마니노프의 원곡이 주는 애상감(哀傷感)이 오케스트라를 만나서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며 쏟아져 내리는 빛소리가 되어, 우렁차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가 되어 귀를 열고 마음을 어루만

졌다. 아무리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잡음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오직 위로의 선율만이 남아서 공연장을 가득 채워주었다. 힘든 일상 가운데 어찌면 지친 몸과 마음으로 공연장을 찾았을 관객들이 꼭 움켜쥔 마음의 방패를 잠시 내려놓고 쉴 수 있도록 해주었다.

2부에서는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e단조 작품 27 S.Rachmaninoff : Symphony No. 2 in e minor, Op 27」을 연주하였다. 선곡에서도 이번 연주에 대한 마음이 느껴졌다.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라흐마니노프가 1895년에 교향곡 1번을 완성한 후 2번을 초연하기까지 무려 10여 년이 걸렸다. 글라주노프의 지휘한 교향곡 1번의 초연이 라흐마니노프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참담한 실패로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신경쇠약과 무기력증과 싸우면서 1908년 초연한 교향곡 2번은 ‘글린카상’을 2회나 수상하는 영광을 가져다주었다.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이 곡을 그가 작곡한 원본 그대로 무려 60분간 연주해냄으로써 그 저력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 힘든 여건 속에서도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클래식 음악의 정통성을 전혀 포기하지 않고서 부산의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무대였다. 모든 교향곡이 그렇지만 특히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은 열정이 충만한 실력 있고 규모가 큰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연주될 때에만 그 색을 보여줄 수 있는 곡이다. 그런 점에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가치와 위상이 더욱 빛났던 무대였던 것 같다.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곡,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연주였다. 템포와 역동성에 집중하고 있자니 긴 연주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였다. 낭만주의 시대의 관현악의 전형적인 작품을 훌륭하게 소화해 낸 감동적인 선율들, 뛰어난 클라리네티스트 연주와 오충근 지휘자의 감동적인 지휘! 슈에인 데 로티쇠르Chaine des Rotisseur가 최고의 스테이크를 만났을 때와 같이, 바카니안Bacchanal

이 아름다운 사람과 사랑을 나눌 때와 같이 행복하고 충만한 마음이 되었다. 이 연주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온 힘을 기울여 연주한 오충근 지휘자, 말이 필요 없는 연주력과 리더십을 보여준 김주영 악장, 지금은 기업가로 변모했으나 해설로 참여한 황지원 전 악장, 그리고 창단부터 함께해 온 단원에서부터 2세대, 3세대 연주자들! 이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올린 무대는 '음악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부산음악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를 빼놓고 부산음악의 정체성을 결코 논할 수 없을 것 같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독심으로 지난 7월에도 신규단원을 60명이나 영입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125명의 단원과 함께 써 내려갈 부산음악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한다.

음악으로 본 세상이야기Ⅶ

바그너의 *Wilhelm Richard Wagner* 오페라 이야기

19세기 오페라 작곡가로는
바그너(1813-1883)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흐르는 역사의 시간은 생각의 흐름보다
조금 느리게 흘러서 그렇지
항상 앞으로 진보하고 있다.
사람들의 의식을 중요시하던
계몽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본의 시간이 도래한다.
자본과 계급이 동일시되듯 흐르는
자본주의가 시작된 때,
또 다른 한쪽의 흐름은
낭만주의라는 흐름이 일어난다.
여기에 바그너가 있다.



Wilhelm Richard Wagner

바그너는 자본에 의한 시민사회의 저속성을 예술로 풀어 내고자 한 사람이다. 예술의 자율성으로 정치와 사회의 분열과 혁명 대신 예술의 혁명을 이야기하게 된다. 바그너의 사고에 깊은 영향을 준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정신이 예술을 통한 사회의 흐름을 밝은 쪽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극복의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

평소 우리는 작곡가 바그너를 어려운 음악, 심오한 음악을 만든 이로 생각한다. 특히 그의 오페라는 무거운 음악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적으로도 그의 오페라는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연주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난제다. 바그너의 음악, 특히 오페라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의 작품은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연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바그너의 이름이 낯설지 않은 것은 〈로엔그린 Lohengrin〉에 나오는 결혼행진곡이 대한민국 대부분의 결혼식장에서 울려 퍼지는 곡으로 우리들에게 매우 친숙하기 때문이다. 작곡가가 누군지, 출처가 어딘지,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선율만큼은 익숙하다. 우리에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어려운 작곡가의 한 곡 정도는 친숙한 것이니 어찌 보면 성공한 셈이다. 일상에서 만나는 바그너의 음악, 그것도 자신들의 생애 가장 축복받는 자리에 울려 퍼지는 결혼행진곡. 곡이 시작되면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의 첫걸음을 시작하니 말이다. 바그너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축복의 작곡가로 충분하다.

공연장에서 바그너의 음악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그의 오페라 〈파르지팔 Parsifal〉을 예로 들어보자. 이 작품은 독일 중세 시대 작가 볼프람 폰 에션바흐(Wolfram von Eschenbach, 1170년 경에서 1220년경)의 작품을 바그너 자신이 대본을 작성하고 작곡한 독일어 오페라이다. 이 작품을 우리나라 무대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이유는 먼저, 독일의 바이로이트에서만 독점



적으로 공연했기 때문이다. 혹여 독일 바이로이트로 공연을 보러 갔다고 해도 언어가 독일어다. 그리고 독일어를 잘 알고 있다고 하여도 총 공연 시간이 4시간 30분.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미 포기 할 것이다. 바그너를 정말 좋아해서 오페라 〈파르지팔〉 공연을 보러 갔을 때, 또 다른 난관이 있다. 우선 오케스트라 편성이 4관이다. 어디 그뿐인가 무대 뒤편에 별도로 6대의 트럼펫과 트럼본이 연주한다. 이러한 엄청난 오케스트라의 음향을 뚫고 성악가는 노래하여야 하기에 아주 뛰어난 오페라 가수가 아니면 바그너의 오페라를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들을 뚫고서 바그너의 오페라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그너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관객층이 두텁다. 우리는 이들을 '바그너리안 Wagnerian'이라 따로 명칭 한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모두 있다는 이 마니아 팬도 이스라엘에서는 아니다. 반 유대주의자였던 바그너는 히틀러가 특히 좋아했다고 알려진 음악가다. 히틀러가 그의 음악을 자주 연주하게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에서는 바그너 음악을 금기시할 정도였기에 연주가 잘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후 바그너 음악을 비공식적으로 금지해



〈니벨룽의 반지_라인의 황금〉



〈니벨룽의 반지_발퀴레〉

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도 지난 2011년에 이스라엘 챔버오케스트라가 독일 바이로이트 축제에 참가하면서 70년 만에 금기를 깨고 연주하였다. 이스라엘 챔버오케스트라가 바그너 음악을 연주하는 기적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인터뷰를 한 지휘자 로베르토 파테르노스트로는 이제 바그너의 세계관과 그의 음악을 분리할 때가 됐다고 했다. “바그너의 이념과 반유대주의는 끔찍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그너는 위대한 작곡가였다”면서 “2011년의 목표는 그 인물과 예술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뉴스를 접한 기억이 있다. 이는 세상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바그너 최초의 오페라는 〈혼례Die Hochzeit〉로 알려져 있는데 분실되었는지, 스스로 파기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현존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바그너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작품은 1842년에 초연한 〈리엔치, 최후의 호민관Rienzi, der Letzte der Tribunen〉에 이어 1841년 작곡해 1843년에 초연한 〈방향하는 네덜란드인Der fliegende Holländer〉, 1845년 〈탄호이저Tannhäuser〉, 1848년 〈로엔그린Lohengrin〉으로 큰 줄기가 이어진다.

일반 음악 애호가들은 바그너 음악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 그는 16년간 외국으로 망명 생활을 하였다. 누가 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망명자의 생활을 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생활적인 면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한 사람의 생활과 사고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그너는 이 기간에 음악보다 깊은 사유를 통한 자신을 바로 세우는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이때 가장 탐독한 사람이 쇼펜

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다. 이 망명은 1848년 드레스덴 궁정 가극장의 지휘자였을 때 터진 혁명에 참여하여 체포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스위스로 망명한 것이었다. 이때의 깊은 고뇌는 <예술과 혁명> Die Kunst und Revolution(1848)과 <미래의 예술작품> Das Kunstwerk der Zukunft <오페라와 드라마> Opera und Drama 그리고 자서전 등 성찰과 사유의 시간을 보낸 결과물을 남긴다.

바그너의 대표적 오페라인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탄호이저> <로엔그린>을 일명 낭만적 오페라의 대명사로 이야기한다.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은 젠타, 엘리자베트, 엘자라는 여성들이 세계를 구제한다는 '여성성'을 주제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바그너의 오페라에서는 신화를 많이 등장시킨다. 신화를 통하여 독일 민족, 그중에 게르만 민족의 상징으로 삼는 것이다. 이는 그의 오페라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오페라를 통하여 바그너가 표현하고자 하였던 대표적인 것은 독일 민족의 집단성이다.

그의 오페라 작품들은 바그너 사후에 초연된 <요정> Die Feen을 비롯하여 <연애 금지> Das Liebesverbot <리엔치> Rienzi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Der fliegende Holländer <탄호이저> Tannhäuser <로엔그린> Lohengrin <트리스탄과 이졸데> Tristan und Isolde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 Die Meistersinger von Nürnberg <라인의 황금> Das Rheingold <발퀴레> Die Walküre <지그프리트> Siegfried <신들의 황혼> Götterdämmerung <파르지팔> Parsifal 등이 있다. 특히, <라인의 황금>은 <니벨룽의 반지>의 전야이며 대서사시의 시작을 알리는 오페라다. 이어지는 <발퀴레>는 <니벨룽의 반지> 제1일, 신의 좌절 그리고 <지그프리트>는 <니벨룽의 반지> 제2일, 영웅의 탄생, <신들의 황혼>은 <니벨룽의 반지> 마지막으로 세계 멸망과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대서사시이다.



<탄호이저>

4부작으로 구성된 <반지>는 원래 나흘간 이어지며 공연되는 작품이다. 하루에 한 작품씩 4일 동안 올려지는 작품의 시간을 보면 <라인의 황금> 2시간 40분, <발퀴레> 5시간, <지그프리트> 4시간 45분, <신들의 황혼> 5시간 30분 등 한 작품당 공연 시간만 보더라도 보통의 애호가 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과 방대한 규모다. 이렇다 보니 4부작 전막은 '바그너의 성지'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Bayreuth Festival에서나 만날 수 있고, 일반 애호가들이 만나기가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오페라의 길, 낭만주의 오페라를 만나게 한 작곡가라는 점이다. 자본이 예술로 흘러와 많은 작품이 만들어졌지만, 수준을 논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예술성을 강조하며 예술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가치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자 한 바그너를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오페라를 통한 시대 읽기는 사회를 새롭게 보는 거울이 된다.

글_정두환 문화유목민, 문화유목집단동행 예술감독
이미지 출처_위키피디아

발레가 있는 무대V

발레,
스크린 속
욕망과
이념



출처_The Red Shoes-IMDB

발레리나라는 키워드

이달 공개를 앞두고 한창 홍보 중인 넷플릭스의 영화 제목을 그냥 모른 척하긴 좀 힘들다. 다름 아닌 <발레리나>. 발레는 영화, 웹툰, 드라마와 같이 대중적인 상업 매체를 통해서도 종종 만나왔기에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나 이처럼 직설적인 제목에는 괜히 한 번 더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아무런 정보 없이 유추해 보면 이 영화는 발레리나가 주인공이거나 발레에 담긴 '피, 땀, 눈물' 같은 게 얼핏 스쳐 간다. 물론 나의 이런 생각은 발레를 다룬 전작들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이 <발레리나>는 그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잠시 기사를 훑어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다. 감독이 정의하길, 자신의 영화 <발레리나>는 '아름답고 무자비한 감성 액션 복수극'이라는 것이다. 세상에나, 이렇게 상반된 복수의 긴 형용사가 중첩된 표현이라니. 영화도 보기 전에 감각적인 언어들 힘겨루기가 느껴진다. 조금 더 상세한 감독의 설명을 옮겨보면, 발레의 아름답지만 치열한 부분에 관심을 두었고, 작품 전체를 하나의 발레 공연처럼 멋있게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한다. 복수 장르와 발레의 결합은 좀 낯설지만, 이 영화 속 발레의 의미와 개연성은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발레가 작은 모티브가 되든, 드라마틱한 주제가 되든 발레를 담은 영화는 다양한 장르물로 꾸준히 제작되어왔다. 이미 큰 주목을 받았던 발레 영화로 <빌리 엘리어트(2001)>, <블랙스완(2011)>, <댄서(2017)> 등이 있는데, 이번엔 요즘 관객에게 조금 덜 친숙한 영화에서 발레의 장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심리 영화의 고전 <The Red Shoes>

발레는 20세기 초 이미 무성 기록영화와 뮤지컬 영화에서도 등장하지만, 예술로서의 발레가 상업 영화의 소재로 등장하여 대중적 반향을 일으킨 것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이다. 1948년 영국 영화감독 마이클 파웰^{Michael Powell}과 에머릭 프레스버거^{Emeric Pressburger}가 제작한 <The Red Shoes>는 바로 이러한 발레 영화의 시초로 잘 알려졌다. 이

영화는 상업 발레 영화의 상징인 동시에 발레리나의 열정과 광기를 다룬 심리 스릴러물의 원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쓴 동명의 동화를 원작으로 하는 <The Red Shoes>는 춤에 대한 열정, 창작에 대한 강박 등이 점철되어 예술과 삶을 분리하지 못하는 발레리나의 비극을 다룬다. 잔혹 동화로도 잘 알려진 <The Red Shoes>는 금기시된 빨간 구두에 집착한 가난한 소녀 카렌의 욕망이 저주를 불러오고, 결국 카렌은 발목 절단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우화적 내용이다. 동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는 비키^(모이라 시어러)라는 무명의 발레리나가 스타덤에 오르는 과정을 따라가며 완고한 발레단 단장 레르몽토프와 이상주의자인 젊은 신에 작곡가 줄리안과의 관계를 그리고 있다. “당신은 왜 춤을 추지?”라는 레르몽토프의 물음에 “당신은 왜 사나요?”라고 되묻는 비키의 유명한 대사에는 발레리나의 강박적 심리를 암시하는 보편적인 서사가 읽힌다.

여기서 동화는 영화 속 비키가 주연을 맡아 성공하게 되는 약 16분간의 발레 작품으로 삽입된다. 빨간 구두 대신 빨간 토슈즈가 금기, 욕망, 창의성의 기표로 설정된 것이다. 동시에 영화의 전체적인 전개도 동화처럼 빨간 토슈즈를 신고 춤에 빠진 주인공이 자살로 춤을 멈추는 비극적 결말로 나아간다. <The Red Shoes>는 영화 매체가 다양한 표현 장치를 통해 발레와 하나의 형태로 잘 결합할 수 있다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이 발레 영화가 대중에게 설득력을 주며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발레에 대한 진정성 때문이다. 영화가 개봉된 1948년 유럽은 발레 뤼스 출신의 예술가들이 활동하던 시기로, 디아길레프와 발레 뤼스의 예술적 취향이 참조되었을 거라 짐작된다^(9월호 참조). 실제 '영화 속 공연'으로 삽입된 발레 시퀀스는 테크니컬러¹⁾, 특수효과, 미장센 등의 영화 기법을 통해 발레 뤼스 풍의 감각적인 무대 연출에 판타지 요소를 결합하여 비키의 이상 심리까지 영상으



로 탁월하게 구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출연진 역시 발레를 제대로 경험하고 연기력까지 갖춘 인물들²⁾로 채움으로써 영화는 내러티브, 기술, 주제, 표현까지 훌륭하게 이루어지는 성과를 이뤘다. 반면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각색된 브로드웨이 뮤지컬 버전은 스토리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3일 만에 막을 내렸다는 후문이 있다.

〈The Red Shoes〉의 인기는 기록으로 남는다. 자국에서의 인기에 머물지 않고 전후 중산층이 여유를 찾아가는 시점과 맞물려 세계 최대 영화 시장인 미국 내에서도 역대 최고의 성공을 거둔 영국 영화가 되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가 한국에선 1952년 피란수도 부산에서 〈분홍신〉이란 제목으로 개봉, 전쟁의 시기에도 서양의 '바-레' 영화로 국내 관객들에게 깊이 각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1957년 서울 시네마코리아에서 새 필름 버전으로 재개봉한 사실을 볼 때 영화의 세계적 인기

를 짐작할만하다. 심리 스릴러를 장착한 이 발레 영화의 고전은 동시대 예술가들에게도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화 〈블랙스완〉의 대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은 이 영화를 직접 참조하였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블랙스완〉 속 니나의 심리 묘사 장면에서 고전의 오마주를 찾기는 어렵지 않으며, 〈블랙스완〉의 젊은 관객들이 〈The Red Shoes〉를 다시 찾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심리물의 원조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2022년 남성 〈백조의 호수〉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매튜 본은 영화 〈The Red Shoes〉를 대사 없는 댄스 버전으로 제작하였다. 다수의 평론가들이 이 고전 영화를 다른 매체와 시대에 맞게 번역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고전과 동시대를 신선하게 넘나 들어온 매튜 본의 이력은 이번 작품에도 빛을 발하고 있다.

발레 영화와 이데올로기

〈The Red Shoes〉의 예처럼 발레 영화의 대중화는 심리물에서 비롯되었으나 무용수의 내면을 집요하고 그로테스크하게 엿보는 방식에서 나아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제작된 작품 또한 발레 영화의 한 축을 이룬다. 물론 인간 사회에서 심리적 기제와 사회적 기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지만 한 개인의 내면보다는 발레 문화와 역사적 맥락이 더욱 부각되는 발레 영화들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인 예로 루이 14세의 일대기를 다룬 제라르 코르비오 감독의 영화 〈왕의 춤(2001)〉은 춤의 사료가 잘 반영된 수작이다. 태양왕 루이 14세는 '발레를 사랑한 왕'이라는 감성적인 수식어가 따라다니지만, 정치적으로는 왕권신수설을 믿으며 국민 위에 군림한 절대군주의 상징이었다. 영화는 극장 발레의 전신인 궁정 발레의 예술성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절묘하게 담아내며 춤의 시대적 의미를 조명하는데 주력한다. 영화에서 음악가 장 밥티스트 륄리, 극작가 몰리에르 등이 절대권력에 헌신하며 완성해가는 화려한 공연 작업은 흥미로우며, 그중 가장 중심이 되는 '무용수' 루이 14세의 춤은 단연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영

화의 매력은 영화 매체의 장점을 활용하여 춤의 특성을 탁월하게 담고 있다는 데 있다. 여기엔 세밀한 사료의 검토가 수반되어 왕의 권력을 재현하는 궁정 발레 안무의 형식과 구조를 카메라에 절묘하게 담고 있다. 또한, 클로즈업을 통해 섬세한 손동작이 이루어지는 손목, 뒤통지를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바로크 스텝까지도 놓치지 않는 점에서 감탄을 금치 못한다. 영화는 공식적으로 태양왕의 음악가이자 무용교사였던 킬리의 시각을 통해 루이 14세 시대의 정치 권력과 음모를 다룬다고 알려졌지만, 춤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구현하는데 많은 공을 들인 작품으로 교육적 가치까지 겸비하였다고 평가된다.

발레 영화는 무용수의 현실적인 삶을 다루며 정치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시선을 반영하는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왔다. 여기서 1985년 제작된 영화 <백야>를 빼놓을 수 없다. 국내 관객에게 이 영화는 각별하다. 영화는 외국 발레단의 공연이나 정보가 흔치 않았던 시기, 관객에게 미하일 바리시니코프라는 세계적 명성을 지닌 무용수를 각인시키고, 그의 실존 삶과 연결 지어 '발레=자유'라는 영화 속 명제를 거부감없이 받아들이게 하였다. <백야>의 흥행은 발레에 관한 흥미를 압도적으로 높였던 것은 분명하나 그 제작 이전에는 냉전 시대 미국과 구소련의 '발레 외교'에서 비롯된 정치적 견제가 있다. 1958년 외교 협정을 기점으로 미국-소련 간 문화 및 교육 분야 교류가 물꼬를 트면서 많은 발레 무용수들이 냉전 시대 외교 사절로 상징적인 활동을 하였다. 정치적 선동과 예술적 자유가 혼재한 시기, 소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소련이 위협적인 제국으로 인식될 때 적어도 무대 위 무용수들은 오로지 예술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정세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던 것이다. 그러나 1961년 누레예프를 선두로 1970년대 마카로바, 바리시니코프, 고두노프 등 샤프테데르부르크 출신(일명 스탈린 제국발레) 주역급 발레 무용수들이 유럽공연 중 망명을 시도하면서

발레는 문화 교류의 꽃에서 다시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휘말리게 된다. <백야>는 바리시니코프의 망명기 자체를 사실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정치적 선택이 아닌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망명을 택했다는 바리시니코프의 고백에 다시 정치색을 입혀 할리우드 영화로 탄생시킨 대표적 예이다. 이에 소련이 가만있을 리 없었다. 같은 해 소련은 <flight 222>라는 영화를 통해 발레리노 고두노프의 미국 망명과 이에 반해 남편을 뒤로하고 소련을 선택하는 고두노프의 아내 이야기를 국제 분쟁으로 그려내기도 하였다. 두 영화 모두 정치적 의도가 분명했지만, 바리시니코프의 절절한 춤과 명연기로 무장한 할리우드 상업 영화의 힘은 압도적이었고 <백야>는 흥행작으로 기록되었다.

미국 춤평론가 조안 아코셀라¹⁾Joan Acocella는 매체의 관음적 성격과 결부시켜, 혹독하고 비현실적 장치를 지닌 예술의 스타일을 엿보는 것이 발레 영화의 기본이자 매력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심리, 역사,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맥락에서 발레 영화가 제작되고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발레의 예술적 성장 과정도 한몫한다. 유럽, 러시아, 미국으로 확장되며 서구 근, 현대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흡수해온 발레의 폭넓은 행보와 궁극의 아름다움으로 귀결시키고야 마는 인간의 '극한투쟁'을 영화는 놓치지 않았다. 그렇다고 모든 발레 영화가 성공할 리는 만무하다. 하지만 발레에 대한 진정성이 담긴 작품은, 그것이 역사적이든 정치적이든 미학적이든, 결코 관객의 눈을 비껴가지 않았다.

글_노영재 춤비평가(사)한국발레협회 부산경남지회 부회장

- 1) 테크니컬러 기술은 흑백에서 컬러 영화로 전환되는 시기인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뮤지컬, 애니메이션, 웨스턴 등 다양한 장르 영화에 사용되어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넘나드는 화려한 시각 효과를 보여주었다.
- 2) 영화에는 다수의 현역 발레 무용수들이 주, 조연으로 영화에 참여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여주인공 비키 역의 모이라 시어러는 영국 새틀러스 웰스 발레단 출신 발레리나였고, 상대역인 로버트 할프만은 (구)로열 발레단의 발레리노였으며, 발레 뒤스의 주요 안무가로 활약했던 레오나드 마신느는 구두 제작자로, 그리고 영국 발레의 창시자인 마리 램버트가 상징적인 카메라로 등장한다.

제7회 부산항 해양가요제 개최



제7회 부산항 해양가요제 본선 무대가 10월 8일 오후 2시, 용두산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제목과 가사 등이 부산과 관련된 노래로만 참가할 수 있는 부산항 해양가요제에 올해는 110여 명이 예선 접수했고 본선에는 13명이 진출해 무대를 꾸몄다. 이날 최고상인 대상은 「금정산」을 부른 박재한이 받았다. 금상은 「해운대의 밤」을 부른 박수진이, 은상은 「부산 여인아」를 부른 한승우가, 동상은 「오륙도 사랑」을 부른 박경희가 받았다. 차성연, 나성, 백수정 등은 초대 가수다운 멋진 무대로 가요제의 분위기를 돋웠다. 부산 시민들의 대표적인 쉼터인 용두산공원을 '부산 노래'와 시민들의 열기로 채우는 부산항 해양가요제의 건승을 기원한다.

손영일무용단, 제32회 전국무용제 금상 외 4개 부문 수상



제32회 전국무용제에 작품 〈페르소나〉로 참가한 손영일무용단이 단체부문 금상(문화체육부장관상)과 함께 단체 개인 안무상(손영일)과 무대에술상(김호진 무대감독), 솔로&듀엣 경연 부문 우수작품상(조은정) 및 부산지회 우수상까지, 참가팀 중 최다 5관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무용제는 지역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전국 16개 광역시·도 대표 무용단들이 실력을 뽐내는 우리나라 최대의 무용 대제전이다. 이번 무용제는 대한무용협회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가 주최하고 대한무용협회 경남지회 주관으로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성산아트홀과 3·15아트센터에서 열렸다.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춤으로 미래를 열다'를 슬로건으로 16개 시·도 단체부문 경연과 솔로&듀엣 부문 경연으로 개최되었다. 공연장 두 곳에서 부산 개최로 출연진의 만족감을 높인 이번 무용제에 대해 심사위원장 김은미는 "삶의 가치와 인간 고뇌에 대해 고민한 작품이 많았으며 현대적 감각을 역동적으로 풀어내려는 안무자들의 의지는 여러 예술과의 융복합으로 이어져 한국 창작춤의 비전을 제시했다"며 "한국 창작춤과 현대무용의 약진은 돋보였으나 발레 작품이 없었던 점, 작품 내용과 상관없이 유행만을 쫓는 건 아쉬웠다"고 심사평을 남겼다.

부산을 대표해 참가한 손영일무용단의 〈페르소나〉는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과 함께 내 안에 내포된 수많은 페르소나를 몸의 언어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부산무용제에서는 9명의 춤꾼으로 작품을 구성했으나, 전국무용제에는 3명을 더 보강하고, 130일간의 연습으로 열정을 쏟은 결과 금상 수상의 쾌거를 안았다. 손영일은 "그동안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항상 겸손하고 진실되게 춤길을 걸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허동윤(건축) 박정선(문학) 김응기(미술) 박찬영(연극), 제66회 부산시문화상 수상

제66회 부산광역시 문화상 시상식이 10월 23일 오후 3시, 수상자와 가족, 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부산시는 앞서 지역 문화예술 기관·단체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아 문화협력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정만희(인문과학) 최창욱(자연과학) 허동윤(공간예술) 박정선(문학) 김응기(시각예술) 박찬영(공연예술) 조연순(전통예술) 김숙현(언론출판) 등 8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건축가 허동윤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는 부산문화콘텐츠클러스, 동아대의료원, UN평화기념관 등 부산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설계했고, 열린부산·도시건축포럼으로 정책 제안을 이끌어내며 인문 무크지 『아크』 발행 등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박정선 소설가는 1987년 등단 이후 『백년동안의 침묵』 등 장편소설, 소설집, 시집, 평론집, 에세이집 등 꾸준히 작품활동을 펼쳐왔으며, 문예 창작 교육, 인문학아카데미 등 다양한 강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정서 함양과 지역문학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개인전 16회, 단체전 200여 회 참여 등으로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응기 작가는 부산현대작가협회 창립으로 지역 현대미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부산청년비엔날레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부산비엔날레의 성장과 발전에 공헌했다. 연극배우 박찬영은 1970년대부터 현장 연극인으로 활동하며, 부산시립극단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술감독으로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부산연극 위상 제고에 이바지했다.



허동윤(공간예술)



박정선(문학)



김응기(시각예술)



박찬영(공연예술)

부산문인협회 제4차 시민문예강좌 개최

12. 5.(금) 오후 4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문인협회(회장 이석래)가 '작고 문인 재조명'을 주제로 2023년 제4차 시민문예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시민문예강좌에서는 '소외된 인간 사랑과 체음滌泣' 소설가 이규정, '스승 요산樂山의 모든 것을 닦고 싶었던' 소설가 성병오, 두 작고 문인의 작품세계와 문학관을 재조명하며 그들이 남긴 족적을 되짚어 본다. 강의를 『마침내 없어진 고향』 『빈들』 『열리는 혼』 『자전거』 외 다수의 장편소설집을 내고 평화방송(FM101.1)과 불교방송(FM89.9)에서 주1회 명작 소개 등을 9년 간 하고 있는 소설가 김광수가 맡았다. 올해 마지막 시민문예강좌는 12월 5일 오후 4시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열리고,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문의_051)632-5888



Sweet Dream 展

~ 11. 4.(토)
성원아트갤러리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가. 자신만의 세계를 개성 있게 표현한 4명의 작가 박성모, 박세연, 이효지, 하혜영이 뭉쳤다. 박성모는 꾸밈없는 순수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어린 시절의 가장 좋았던 추억을 떠올려 가족과 함께했던 일상의 순간의 행복함을 담고 있다. 박세연은 깊숙한 감정의 민낯을 마주하기 위해선 가면을 벗을 용기가 필요하지만 나를 이해하기 위해선 가면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효지는 쉽없이 달려가는 현대 도시 생활에서부터 생겨나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 어릴 적 동화책 장면의 순수한 마음을 기억하길 바라며, 하혜영은 무나라는 캐릭터를 통해 우리의 삶과 추억, 회상에 대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이들의 작품을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지어질 것이다.

문의 0507-1334-4998



**홍익중 개인전 :
푸름으로부터**

~ 11. 4.(토)
김스아트필드미술관

판화가 홍익중은 소나무가 가진 다양한 형상들을 거칠고 간결하게 상징과 풍자, 은유를 구사해가며 표현하는 작업을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움직이는 소나무'라고 명명한 적 있다. 작업 초기에 만났던 소나무는 강인하고 울퉁은 우리의 정서를 표현하는 소재로 활용되었다면, 최근 작가가 보여주는 소나무는 더 나아가 생명력을 가진 자연의 원동력을 상징한다. 삶의 의지, 주위 환경에 대한 극복 의지가 푸르름을 간직한 소나무의 자태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작가는 시대의 변화를 섬세하게 읽어내며 소나무에 그 흐름을 투영한다. 푸른 소나무로부터 세상을 향해 굳세게 나아가고자 하는 희망적 메시지를 이번 전시를 통해 얻어갈 수 있길 바란다.

문의 051)517-6800



**타악연희퍼포먼스
'에타'**

11. 4.(토) 오후 2시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타악그룹 HATA만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타악음악을 들 수 있는 퍼포먼스 공연이 펼쳐진다. 대북의 웅장한 울림과 구름 시나위의 협연, 창작무용을 접목한 크로스오버 음악인 '연향'이 문을 연다. 뒤를 이어 설장과 가락의 음색과 울림을 새로운 해석과 색다른 연주기법으로 전통 타악이 가지는 음악적 감동과 신명을 전통적 틀을 벗어나 다양한 시도로 연주하는 전통 타악연주곡인 『꽃비 소나타』를 들 수 있다. 세계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와 서양 타악의 대명사 드럼, 전통타악음악과 태평소의 협연, 강렬하고 빠른 비트와 다양한 음색이 조화를 이루어 연주하는 타악 연주곡임과 동시에 박진감 넘치는 두드림의 타악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으로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문의 051)749-7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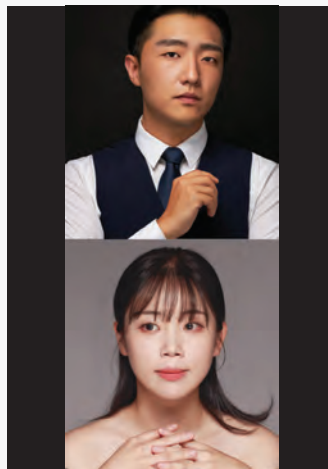


고정화 피아노독주회

11. 7.(화) 오후 7시 30분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피아니스트 고정화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가 고태국음악비 건립 15주년을 기념하는 독주회를 연다. 고정화 교수의 부친인 고태국 선생은 성악가이자 합창 지도자, 음악 교육자로 부산의 선구적 음악가로 활동했으며 지역 음악 발전에 기여한 공을 기리고자 2008년 11월 기념비가 완공되었다. 연주에서는 고정화 교수가 슈만-리스트의 「Widmung (현정)」과 슈베르트의 「즉흥곡 D.899」, 쇼팽의 「발라드 1, 3번」, 그리고 작곡가 김보현의 세계 초연곡 「그림자」를 들려준다. 그의 딸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오난숙과 부산음악협회장을 지낸 피아니스트 유영욱이 특별 출연으로 차이콥스키의 「멜로디 Op.42」와 사라사테의 「바이올린을 위한 서주와 타란텔라 Op.43」을 연주한다.

문의 010-3779-9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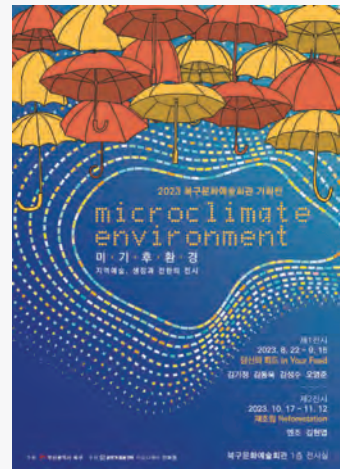


11월 짜장콘서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노래'

11. 11.(토) 오후 4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대표 김정욱)의 11월 짜장콘서트는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노래' 네 번째 무대다. 부산에서 비약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청년음악가들의 무대로 김경한 최주영이 한국가곡을 비롯해 가요, 칸초네, 오페라 아리아 등을 선사한다. 바리톤 김경한은 한국음악교육협회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고 부산음악축제 신인음악회에 출연했다. 디지털 싱글 〈별에게서〉를 발매했으며 JTBC 팬텀싱어 3에 출연하기도 했다. 소프라노 최주영은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술피리〉 〈박쥐〉 등의 오페라에 주조역으로 출연했다. 김경한과 최주영은 「고향생각」, 「코스모스를 노래함」 등과 「아침의 노래」, 「마술피리」 중 아리아 '아, 난 느껴요' 등을 각각 노래한다. 또, '톡톡(Talk Talk): 나의 노래방 1번 코너에서 「잊혀진 계절」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 051)987-5005



미기후 환경 지역 예술, 성장과 전환의 전시' 부제: 재조림 Reforestation

~ 11. 12.(일)
북구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

미기후(微氣候란, 주변환경과 다른 특이한 요인에 의한 차이 때문에 작은 지역 안에 국지적으로 만들어진 기후를 의미한다. 이번 전시는 부산의 보편적 예술 환경 안에서 어렵게 시작하는 신진 작가들이 북구 고유의 예술 환경이 좋은 미기후 환경이 되어 우수한 예술 작품을 많이 키워나갈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됐다. 제2전시는 동시대의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색채들과 팝아트 형태의 표현에 주된 관점을 두고 작업하고 있는 엔조와 김현엽 작가의 설치미술 작품들로 구성된다. 대담한 색채와 선을 통해 시대적 추억이 담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엔조와 무겁고 감압해 보이는 기어 인형의 모습을 인간의 버겁고 지친 모습에 빚대어 표현하는 김현엽의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이 위로와 추억의 동화를 얻어갈길 바란다.

문의 051)309-4522



**오페라
'푸른 눈의 선한 사마리안'**

11. 12.(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한국전쟁 당시 부산역 건너편 판자촌에서 화재가 발생해 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때 군법을 어기며 군수물자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가 미군 군수사령관 리처드 윌트컴 장군이었다. 그는 이 일로 전역해야 했으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부산대학교 건립 등 교육지원 사업과 메리놀병원과 성분도병원 등 의료기관 설립 지원에 참여했으며, 전쟁 고아를 도왔다. '푸른 눈의 선한 사마리안'은 부산창작오페라단이 윌트컴 장군을 기리고자 마련한 오페라 갈라 추모음악회다. 그의 생애와 업적은 담은 오상준 국제신문 미래전략실장의 『리처드 윌트컴』을 원작으로 지역의 극작가인 김문홍이 대본을 쓰고 조희주가 작곡에 참여했다. 1부에서는 한국가곡과 단막음악극을 선보이고 2부에서 3막 구성의 오페라를 공연한다. 유상홀(윌트컴 역) 송순임(한모수 역), 소프라노 황신영, 테너 양승엽 등이 출연한다. 문의 010-3765-0917



**차현욱 개인전
[Stranger : 이방인의 난제들]**

~ 11. 18.(토)
갤러리플레이리스트

현재 한국 미술계에서 가장 동시대적인 동양 산수화로 주목받고 있는 차현욱 작가의 개인전이 중앙동에 위치한 갤러리플레이리스트에서 열린다. 작가의 작품에 담긴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풍경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현대적이다. 전통적인 동야 산수화의 기법을 활용하지만, 작가 고유의 채색과 질감, 표면의 흠을 통한 여백의 구현은 한지, 먹, 동양 안료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형식과 틀을 해체, 끊임없는 재료에 대한 분석과 연구의 결과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다. 광각의 화면 속에 담긴 다채롭고 세밀한 구성은 작가만의 색감과 함께 고유의 아름답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한편 부산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작가의 기억에서 착안한 작품 『애기소』를 비롯한 다수의 신작을 더해 총 28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70-8287-2259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을숙도 명품콘서트**

11. 23.(목) 오후 7시 30분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송근 감독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을숙도 명품콘서트에서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넣은 고전적인 드라마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선사한다. 창단 30주년을 맞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실력파 협연자들과 함께 모차르트 오페라 『티토 황제의 자비 서곡 K.621』를 시작으로 협주 교향곡이라는 뜻의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K.364'와 『교향곡 35번 하프너』를 연주한다. 『티토 황제의 자비 서곡 K.621』는 의뢰를 받고 18달만에 완성해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많이 쓰이며, 『교향곡 35번 하프너』는 36번 '린츠' 38번 '프라하'를 거쳐 41번 '주피터'까지 이어지는 모차르트의 위대한 후기 교향곡 세계의 개막을 일컫는 결정이다. 청년시대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K.364'는 윤은솔의 바이올린과 김규현의 비올라가 함께한다. 문의 051)220-5801



감각의 META K - 3인

~ 11. 24.(금)
아리안갤러리

30년 이상 각자의 방식으로 꾸준히 작업을 해온 3인 작가들의 치열하고 깊이 있는 예술세계를 재조명해보는 전시가 있다. 김춘자는 생명과 자연을 주제로 식물, 동물, 인간이 한데 어우러져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김섭은 소박한 일상의 장면들을 동화적 정서로 친근하게 살려내며 문학적, 종교적 관심과 감성의 깊이로 안내한다. 심점환은 존재가 가진 불안한 기억과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의지와 관련 없이 작동되는 미지의 세계를 '실존적 불안'으로 담아내고 있다. 서로 다른 조형 언어가 한 공간에 병치되어 만났을 때 의외의 조화로우미 연출하는 긴장감과 시각적 리듬감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

문의 051)757-2130



김주희의 달콤한 휴식

11. 11.(토) ~ 26.(일)
갤러리한스

갤러리한스가 도예가 김주희의 '달콤한 휴식'전으로 수확의 계절 가을에 잠시 쉬어가라고 초대한다. 높아진 하늘과 흰 뭉게구름, 바람에 몸을 맡긴 역새플, 노랗게 물드는 나뭇잎까지 가을이 왔기 때문이다. 작가 또한 지금 우리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길 권한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다소곳한 모습의 여인들은 기도하는 소녀의 모습이다. 단순하면서도 동글동글 귀여운 이미지의 도예인형을 보고 있으면 뾰족했던 마음에 미소가 피어나고 가을바람과 함께 전해지는 금목서의 향을 맡고 싶어진다. 작가는 다섯 번의 개인전과 공예트렌드페어, 서울오픈아르페어, 부산디자인페스티벌에도 참여하며 다수의 단체전에서 작품을 선보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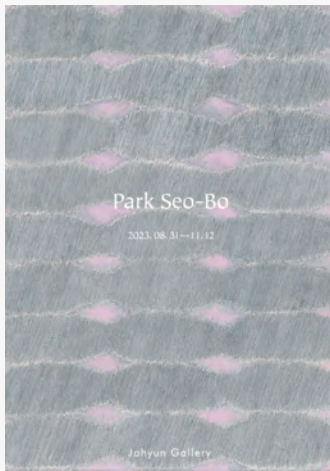
문의 051)784-0233



Herstory : 허스토리

~ 11. 28.(화)
소울아트스페이스

소울아트스페이스는 3대 미술가 집안인 원로 화가 김종복, 딸 정명화, 손녀 장미송의 3인전을 개최했다. 자연으로부터 얻은 감흥을 다채로운 색채와 강렬한 붓 터치로 구현하는 어머니 김종복,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자유로운 드로잉으로 화폭에 담는 딸 정명화, 테디 베어와 케이크를 소재로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손녀 장미송. 세대를 달리하면서도 자신만의 조형세계를 추구하는 그녀들의 역사와 이야기를 따라가 본다. 울타리 속에서 각기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이들의 작품은 보통의 날들을 새로운 순간으로 환기한다. 할머니이자 어머니, 어머니이자 딸, 딸이자 손녀인 이들 여성의 관점과 경험으로 기록된 서사 'Herstory'는 우리에게 행복이란 낯선 곳에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문의 051)731-5878



박서보 개인전

~ 12. 3.(일)
조현화랑 달맞이 및 해운대

지난 10월 14일 별세한 박서보 화백의 개인전이 조현화랑 달맞이와 해운대에서 열리고 있다. 당초 전시 일정은 11월 12일까지였지만 이번 전시가 그의 유작전이 되면서 12월 3일까지로 연장됐다. 조현화랑에서는 2020년대를 기점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후기 연필묘법 작품 12점을 국내 최초로 소개하고, 화백의 묘법을 손자인 박지환(비디오영상 디렉터)이 디지털 화면으로 재해석한 특별한 미디어 작품과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세라믹 묘법 6점, 대형판화작품 4점도 함께 전시한다. 생전에 화백은 “무목적성으로 무한반복하며 나를 비우는 작업”이라고 연필묘법을 설명한 바 있다. 투병 중에도 “캔버스에 한 줄이라도 더 긁겠다”라던 실천이 작품에 담긴 깊이를 더하는 듯하다.

문의 051)747-8853



**계당 최부길 사진전
'옛생활'**

11. 28.(화) ~ 12. 3.(일)
금정문화회관 제2전시실

50년 넘게 생노과 사死를 주제로 사진 작업을 해온 계당 최부길의 사진전이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린다. 1970년대부터 사적 작가 생활을 해온 작가는 해 질 무렵이면 옛날의 그리움이 밀려와 어린 나이에 서글픔을 느끼던 저녁 풍경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의 청년 시절, 비록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젊음이라는 패기 하나로 마음껏 열정을 쏟아부었던 결과물을 공개하고자 한다. 그때의 순수하고 수수한, 때로는 낭만적이기도 한 장면들을 필름에 담았다. 흑백 사진에 정갈하게 담긴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작가의 젊은 시절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의 정서가 물씬 느껴지는 작품들로 배치되어 있다. 아무쪼록 작가는 이번 개인전을 통해 가슴 한편에 묻어뒀던 관람객의 추억들을 회상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010-3580-7714



**신과 함께
- 도깨비 모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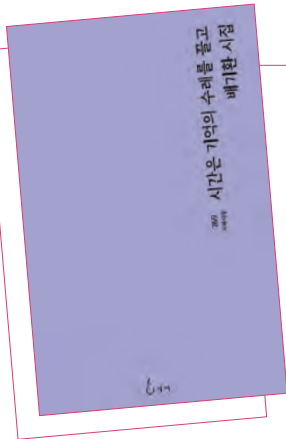
~12. 10.(일)
정관박물관

우리나라 도깨비 형상을 찾아 보고 도깨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마련한 정관박물관의 특별기획 전시이다. '만남'은 조선시대 기록을 통해 일제강점기 왜곡된 도깨비의 올바른 형상에 대해 살펴보고, '형상'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도깨비 관련 특정 문양의 유물에서 의미와 특징을 짚어본다. '공생'에서는 도깨비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와 위치로 전승됐는지 지배층과 서민들의 기록을 통해 살펴본다. 네 번째 '섬기기'에서는 신으로 승격된 도깨비 신앙에 대해 알아본다. 전시와 연계해 ▲나만의 도깨비 만들기 ▲도깨비에게 소원 빌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을 위해 전국 13개 기관에서 100여 점의 유물을 모았으며, 부산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유물들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51)720-6921



춤, 언어의 춤 노영재 / 현복스

“지금껏 대학이 순수예술인의 양성에 매진해 왔다면 현재의 사회는 더 이상 순수예술만을 바라지 않는다. 순수예술을 버리고 ‘새로운’ 대중예술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영역과 기술을 넓히려는 것이다.”(p.319) 대학에서 발레를 전공한 저자는 이론가, 비평가, 연구자, 교육자 등의 활동을 통해 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개인 공연에 대한 단평과 현장 스케치 리뷰, 부산에서 열리는 축제와 무용제 등 무용 행사에 대한 조명, 지역 무용가와 의 만남 등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쓴 글들을 갈무리했다. 부산예술정책위원, 한국발레협회 부산경남지부 부회장 등 지역에서 사회적 역할을 겸하며 대담 혹은 토론을 위해 준비했던 원고들도 여롭게 구성돼 있다. “길 위에는 실패한 작품은 없고 다만 아직 글로 연결되지 않은 춤의 언어만이 있다”고 말하는 저자가 ‘글쓰기의 안무’로 새로운 독자와 소통하고 싶은 바람이 담긴 책이다.



시간은 기억의 수레를 끌고 배기환 / 지혜사랑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들으면 상처도 치유되지만 삭막하고 딱딱한 일상에선 꽃들의 노래만 듣고 살 수 없다. 단단하지 않은 멧집은 단숨에 ‘멘탈 붕괴’를 불러오며 상처를 더 곱게 만든다. 배기환 시인은 아주 씩박한 방법을 알려준다. ‘언어에 매달려 있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가시들, 나는 그 길로 돌아와 양쪽 귀에 수북이 쌓여있는 그 가시들을 면봉으로 후벼 파내었다’(가시 돌친 말, 중) 1997년 월간 『詩文學』으로 등단한 시인은 제21회 한국해양문학상 대상을 수상집인 『불멸의 바다 詩篇』 외에 『견고한 생각』 『젊음의 징비록』 등의 작품집을 펴냈다. 남송우 문학평론가는 “언어를 시적으로 재미있게 풀어낼 뿐만 아니라 생명의식이 자연대상에 투영되어 그 속에는 호환할 수 없는 휴머니즘적 경험들이 실감과 상상적 글로 나타나 읽는 이로 하여금 감칠맛 나는 맛을 제공”한다고 소개한다.



천리길 수채화 1·2 양홍근 / 도서출판 제나

번짐과 흘림의 미학이라 일컬어지는 수채화는 그 물맛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부산 수채화협회 자문위원, 한국수채화협회 부이사장으로 활동하며 11회의 개인전과 300여 회에 이르는 단체전·초대전에 참가했던 양홍근 작가가 수채화 입문서를 발간했다. ‘기초 부족은 어느 시점에서 발전이 멈추게 되고, 그로 인해 흥미를 잃게 되며 무력감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며 ‘모든 분야가 그렇듯 기초과정을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말한다. 1권은 연필화를 문지르고 퍼뜨려 수채화 느낌으로 대상을 그려보는 수채화 감상드로잉(1장)과 수채화에 있어 기초적인 기법과 물감의 농도 감각을 익히는 수채화의 기법(2장), 2권은 정물의 입체감, 질감과 공간감을 기르는 정물개체표현(3장), 풍경화에 있어 원근감 익히기 등 풍경개체표현(4장)으로 구성했다.

부산예술회관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을 실비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순수한 열정과 참여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나는 곳입니다.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연, 전시,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무한한 창작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 문화를 제공합니다.

부산예술회관 대관시설 면적

공연장	597.56㎡ (240석)		
회의실	87.62㎡	3층 전시장	122.57㎡
4층 전시장	116.32㎡	4층 연습실	102.12㎡
2층 연습실	94.05㎡	1층 연습실	52.62㎡
지하주차장	약 60대 주차 가능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www.bsart.or.kr

대표전화 051) 631-1377

대관문의 051) 612-1376



부산예술회관 예술아카데미

접수기간 : 분기 시작 1달전~개강일
 접수방법 : 전화, 방문 접수 (부산예술회관 302호)
 * 카카오톡 채널 접수 가능 '부산예술회관 아카데미' 검색
 계좌이체 : 부산은행 310-01-001290-2
 * 수강료 납부 후 꼭 연락 바랍니다.

4분기 (2023년 10~12월)

순번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요일 및 시간 / 장소	수강료
1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70명	화) 13:30-15:30 <1층 공연장>	* 3개월 3만원
2	한국무용교실	20명	목) 14:00-15:50(심화반)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3		20명	목) 16:00-17:50(기초반)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4	아랑고고장구	20명	수) 14:00-15:30 <2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5	라인댄스(오전반)	20명	화,목) 11: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6	댄스 스포츠	20명	화,목) 10:00-10: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7	가곡교실	20명	수) 12:00-13:50 <2층 연습실>	* 3개월 15만원
8	너도나도 방송댄스	20명	월,수) 17:00-17:50 <미정>	3개월 15만원
9	통기타 반주법과 연주	20명	수) 16:00-18:00 <미정>	3개월 15만원
10	스마트폰 사진교실	10명	목) 10:00-11:50 <4층 회의실 또는 강사작업실>	* 3개월 15만원
11	웰빙댄스	20명	월) 10:00-11:30 <4층 연습실>	* 3개월 9만원
12	(신규) 수채화교실	20명	화) 10:00-11:50 <4층 회의실>	* 3개월 15만원
13	(신규) 드로잉교실	20명	화) 13:00-15:50 <4층 회의실>	* 3개월 15만원
14	(신규)흥겨운 우리가락 경기민요	10명	화) 13:00-14:50 <2층 연습실>	* 3개월 9만원

개강완료

※ 수강료 외 재료비, 반주, 교재비 별도
 ※ 일부강좌 수시접수 가능

문의 : 070-4206-9140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방 성 빈 BNK부산은행 은행장
손 병 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하는 광고주가 되시면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변화하는 부산은행 변함없는 든든한 동반자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처럼

변함없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객과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부산은행이 되겠습니다

정가 5,000원



9 771976 974008

ISSN 1976-9741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